

연대의 홀씨

SOLIDARITY SPORES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 \cdot 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특별히 2020 ACC CONTEXT <u>연대의 홀씨</u>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ACC CONTEXT 전시는 동시대이슈를 발굴하여 현대 미술을 통해 담론을 제시하고 아시아의미래 지향적 비전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으로 광주의 오월 정신 '민주', '인권', '평화'를 전당의 문화 콘텐츠에 반영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3세계 국가들의 역사적 궤적을아카이브 자료 및 유물을 통해 제시하는 작품과, 오늘을 사는예술가들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작품들로구성하여 평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시를 위해 협력한 슬로베니아의 류블랴나 현대 미술관과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 여러분과 본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과 국내외 큐레이터들, 그리고 참여 작가들과 전시를 준비한 아시아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앞으로도 창의적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A Window of Asian Culture Facing the World)이 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

Asia Culture Center is proud to present 2020 ACC CONTEXT Solidarity Spores to commemorat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elebrating its third installment this year, ACC CONTEXT unearths contemporary issues and discourse in modern art that shape a future-oriented vision of Asia. This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Gwangju, and Asia Culture Center seeks to reflect the values of the movement that include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n its cultural content. Through archived materials and artifacts, this exhibition showcases traces of history in the developing world. The works of participating contemporary artists present a message of peace that sheds light on the present and foreshadow the future.

I would like to thank the staff of collaborating organizations—Moderna Galerija/Museum of Modern Art in Ljubljana, Slovenia, Museo de la Solidaridad Salvador Allende in Chile and Seoul Museum of Art. And my deepest gratitude extends to all those who helped to plan and to prepare this exhibition: the artistic director and curators from domestic and abroad, participating artists, and the staff of Asia Culture Institute.

Through creative cultural content, Asia Culture Center will try its absolute best to continue to become "A Window of Asian Culture Facing the World." Thank you.

Park Taeyoung
Acting President of Asia Culture Center

아시아문화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동시대 시각 예술로 풀어내는 ACC CONTEXT를 연례적으로 진행합니다. 2020 ACC CONTEXT는 20세기 냉전 시대의 정치적 기획이었던 비동맹 운동을 소환하여 21세기 미래를 여는 평화의 연대를 제안합니다.

COVID-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두로 부상한 '연대'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목적인 '아시아 문화 공동체 형성'을 견인하는 주요 개념이기도 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연대'에 대한 사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도 전시에 참여해 주신 여섯 큐레이터와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슬로베니아의 류블랴나 현대 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 협력 기관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 Every year, Asia Culture Institute and Asia Culture Center host ACC CONTEXT, in which timely issues are interpreted through contemporary visual art. For 2020, ACC CONTEXT revisits the political agenda of the Non-Aligned Movement of the 20th-century Cold War era, and in the process, offers new ideas for peaceful solidarity in the 21st century.

In light of COVID-19, "solidarity" has emerged as a more important issue than ever. Its meaning is predicated on understanding and empathy for others that stem from achieving a shared goal. It is also the key concept of Asia Culture Institute's mission of "shaping a cultural community in Asia." It is our hope that through this exhibition, the many visitors to Asia Culture Center will appreciate the diverse motivations for solidarity that transcend space and time.

I'd like to express my utmost gratitude for the six curators and all of the artis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exhibition despite the pandemic. I'd also like to thank the collaborative organizations, namely Moderna Galerija/ Museum of Modern Art in Ljubljana, Slovenia and Seoul Museum of Art.

Lee Gi Pyo President of Asia Culture Institute CONTENTS

연대의 홀씨: 비동맹 운동과 제3세계 프로젝트의 정신을 소환하며

남반구의 성좌

- 14 남반구의 성좌: 비동맹의 시학, 광주 스테이션
- 한국 전쟁 이후의 세계, 1953-2020
- 아트 파빌리온 슬로벤 그라데츠
- 유고슬라비아와 개발 도상국 간의 국제 문화 협력
- 34 비동맹 국가 미술관 "요시프 브로즈 티토"
- 38 아프리카 미술관: 베다 자고라츠 & 즈드라브코 페차르 컬렉션
- 42 새로운 국제 관계의 공식화: 1961 베오그라드 회의-유고슬라비아 박물관(베오그라드)
- 페렌츠 그로프
- 52 에네르고프로옉트에는 절대 해가 지지 않는다 (해가 지기 전에는)
- 60 제3세계: 비동맹 국가의 판화, 1961년에서 1991년까지 류블랴나 국제 그래픽 아트 비엔날레 출품작

유토피아 스테이지

- 유토피아 스테이지
-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아카이브의 발굴
- 에피소드 1. 로컬 예술 형태의 활성화
- 에피소드 2. 소리로 이루는 평등, 통합, 그리고 보편
- 에피소드 3. 의례가 지닌 보편적이며 황홀한 힘에 자유를
- 에피소드 4. 오개스트의 탄생
- 92 에피소드 5. 현대화하는 보호주의자와 의례화하는 모더니스트가 어울려 모인 집합체의 강화
- 94 에피소드 6. 아방가르드 흡수를 통한 지식 전파 방식의 전복
- 102 에피소드 7. 아프리카 사례의 홍보
- 108 나임 모하이멘
- 114 서현석
- 118 발리 마흐루지/마지막 10년의 고고학
- 124 봉쇄는 없다. 연대 미술관(MSSA), 홀씨가 된 미술관

Solidarity Spores: A Call for the Spirit of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Third World Project

Southern Constellations

- Southern Constellations: The Poetics of the Non-Aligned, Gwangju Station
- World since the Korean War, 1953-2020
- Art Pavilion Slovenj Gradec
- Yugoslavia'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Culture with Developing Countries
- The Gallery of Art of the Non-Aligned Countries "Josip Broz Tito"
- 38 The Museum of African Art: The Veda and Dr. Zdravko Pečar Collection
- 42 Formulating New International Relationships: 1961 Belgrade Conference—The Museum of Yugoslavia (Belgrade)
- Ferenc Gróf
- The Sun Never Sets on Energoprojekt (Until it Does)
- Third World: Prints from the Non-Aligned Countries at the International Biennial Exhibitions of Graphic Arts in Ljubljana between 1961 and 1991

A Utopian Stage

- 72 A Utopian Stage
- Shiraz-Persepolis: The Excavated Archives
- Episode One. Reinvigorating Local Art Forms 76
- Episode Two. Equalising, Unifying, and Universalising through Sound
- Episode Three. Emancipating the Universal Ecstatic Powers of Ritual
- 88 Episode Four. Creating Orghast
- Episode Five. Consolidating a Nexus for Modernising Nativists Mingling with Ritualising Modernists
- Episode Six. Co-Opting the Avant-Garde in Reversing the Transmissions of Knowledge
- 102 Episode Seven. Promoting the Case of Africa
- 108 Naeem Mohaiemen
- 114 Hvun-Suk Seo
- 118 Vali Mahlouji/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 124 No Containment. MSSA, the Museum as Spore

퍼포먼스 프로젝트

- 132 퍼포먼스 프로젝트
- 134 호루이 안
- 140 킥 더 머신 다큐멘터리 컬렉티브
- 144 에카 쿠르니아완/백현진

공통 관심사

- 150 공통 관심사: 젊은 아시아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대화를 위해
- 152 응우옌 장
- 156 나가시마 리카코
- 160 유관설계부문
- 164 다카다 유이
- 168 자누아르 리안토
- 172 배민기
- 176 시드니 시에/전위존
- 180 하시즈메소
- 184 기디언-제이미
- 188 후루프
- 192 홍은주
- 196 사키호
- 200 신인아

일상의 연대

- 206 일상의 연대: 차세대 작가들의 잔잔한 제안들
- 208 최윤/킴벌리리
- 212 이세현
- 216 이동근
- 220 차재민
- 224 송민정
- 228 윤지원
- 232 최하늘
- 236 이강승
- 240 염지혜
- 244 파트타임스위트
- 250 김희천/호상근
- 254 황문정

Performance Project

- 132 Performance Project
- 134 Ho Rui An
- 140 Kick the Machine Documentary Collective
- 144 Eka Kurniawan/Bek Hyunjin

Common Interests

- 150 Common Interests: For a Conversation of Young Asian Graphic Designers
- 152 Giang Nguyen
- 156 Rikako Nagashima
- 160 Related Department
- 164 Yui Takada
- 168 Januar Rianto
- 172 Bae Minkee
- 176 Sydney Sie/Zen Yun Zon
- 180 So Hashizume
- 184 Gideon-Jamie
- 188 Huruf
- 192 Hong Eunioo
- 196 Saki Ho
- 200 Shin In-ah

Solidarity in Everyday Life

- 206 Solidarity in Everyday Life: Simple Suggestions from the Next Generation of Artists
- 208 Yun Choi/Kimberly Lee
- 212 Sehyun Lee
- 216 Donggeun Lee
- 220 Jeamin Cha
- 224 Song Min Jung 228 Yoon Jeewon
- 232 Haneyl Choi
- 236 Kang Seung Lee
- 240 Ji Hye Yeom
- 244 Part-time Suite
- 250 Kim Heecheon/Sangun Ho
- 254 Moonjung Hwang

연대의 한교

- 260 연대의 학교를 열면서
- 262 특별 강연 1. 지금, 인간적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제3세계 프로젝트를 생각한다
- 263 특별 강연 2. 신질서 폭력 체제 아래서의 대중문화
- 264 1강. 제3세계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거울상: 반둥과 이리안자야
- 265 2강. 누가 아시아를, 제3세계를, 연대를 참칭하는가: 1960년대 한국의 탈식민 통치와 정치
- 266 3강. 제3세계, 언어의 모험
- 267 4강. 전후 아시아 지역주의와 제3세계 기획의21세기적 의미
- 269 5강. 반둥 정신의 탄생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
- 270 6강. 1960년대 한국의 비동맹 중립화 논의와 아시아 정치 공간의 탐색
- 271 7강. 중국 문화 대혁명과 세계적 여파
- 272 8강. 라틴 아메리카는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 273 9강.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해방 신학
- 274 10강. 제3세계 이후? 지구화, 세계화 그리고 제3세계였던 세계
- 276 참여자 소개

Solidarity School

- 260 Hosting the Solidarity School Lecture Series
- 262 Special Lecture 1. Need To Create Humanity: Thinking of the Third World Project in the Time of the Coronavirus
- 263 Special Lecture 2. Popular Culture Under the New Order's Violent Regime
- 264 Lecture 1. The Mirrored Images of Third World Nationalism and Colonialism: Bandung and Irian Jaya
- 265 Lecture 2. Who Falsely Claims the Name of Asia, the Third World and Solidarity: Decolonialist Rule and Governance in 1960s Korea
- 266 Lecture 3. The Third World, an Adventure in Language
- 267 Lecture 4. The 21st Century Implications of Post-war Asian Regionalism and the Third World Agenda
- 269 Lecture 5. The Birth of Bandung Spirit and Korea's Imaginary of Asia (1955–1965)
- 270 Lecture 6. The Discussion of 1960s Korea's Nonaligned Neutralization and the Exploration of Asia's Political Space
- 271 Lecture 7. China's Cultural Revolution and Its Global Repercussions
- 272 Lecture 8. Why Isn't Latin America Advancing?
- 273 Lecture 9.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Liberation Theology
- 274 Lecture 10. After the Third World?
 Globalization, Mondialisation, and the World that Used to Be the Third World

276 Contributors

연대의 홀씨

비동맹 운동과 제3세계 프로젝트의 정신을 소환하며

SOLIDARITY SPORES

A Call for the Spirit of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Third World Project

1971년 칠레 산티아고에 미술관 역사에서 전례 없는 미술관이 탄생했다. 이 미술관 건립은 살바도르 아옌데가 칠레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칠레에 모여든 전 세계 지식인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아옌데 대통령은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하고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그의 사회주의 '인민 연합'을 지지하는 연대의 정표로 작품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모인 작품은 무려 700여 점에 달했다. 이렇게 연대의 네트워크로 "칠레 인민을 위한" 미술관인 '연대 미술관'(MS)이 출범했으나, 얼마 안 가서 쿠데타로 인해 '살바도르 아옌데 국제 저항 미술관'(MIRSA)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망명 길에 올랐고, 1991년 칠레 산티아고로 귀환후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MSSA)으로 다시 그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렇듯 연대 미술관은 저항과 희망의 상징이자, 좌절을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한 역사의 산 증인이며, 동시에 정치와 예술 실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그 자체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의 미술관도 아니고 최고의 소장품을 자랑하는 미술관도 아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낯선 미술관의 탄생 배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대 미술관의 감동은 바로 군부 독재, 제국주의, 탄압에 저항하며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를 향한 칠레 인민의 열망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연대했던 전 세계 예술가들의 '친화력'(elective affinity)에 있다. 이는 언제나 열려 있고 침투 가능하며 결코 지역적이지 않은, 하지만 연대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미술관의 모습인 것이다. 여기서 '예술가들의 연대'는 곧 미술관의 정체성이며 '홀씨'와 같이 유동적이고 자생적이며 수행적인 예술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서구 중심 미술사나 미학적 기준 그리고 기존 미술관 개념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자 라디칼(radical)한 도전이기도 하다. 연대 미술관의 이러한 정신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와 평등 사회,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비동맹 운동의 정치적 이상과 완벽히 조우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동맹 운동의 열망은 제3세계라 불렸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닌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정치 문화적) 프로젝트"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자생적 문화 생산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u>연대의 홀씨</u> 전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자유와 평등을 열망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상상을

In 1971, a museum that is the first of its kind opened its doors in Santiago, Chile. With the inauguration of Salvador Allende into presidency, a group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s and thinkers who gathered in Chile initiated the museum project as a form of resistance against the ruling powers antagonistic to Allende's Popular Unity (Unidad Popular) coalition. President Allende immediately accepted the project proposal and asked artists around the world to donate their work to show solidarity with the socialist Popular Unity coalition, and in response, over 700 works were collected. With this solidarity network, the Museum of Solidarity (Museo de la Solidaridad) was launched but was soon cut short by a military coup. From 1975 to 1990, the project was reborn as the museum in exile and was renamed the International Museum of the Resistance Salvador Allende (Museo Internacional de la Resistencia Salvador Allende). In 1991, the museum was reinstated and returned to Santiago, Chile, where it is currently in operation under the name of the Museum of Solidarity Salvador Allende (Museo de la Solidaridad Salvador Allende).

Given this history, the Museum of Solidarity is a symbol of resistance and hope, and a witness to the history of overcoming struggles through the spirit of solidarity. As such, it offers an exemplary alternative in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art practice. What is the significance of a museum little known to u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globe? The main inspiration of the Museum of Solidarity is the "elective affinity" of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who were naturally drawn to and showed solidarity with the Chilean people who desired a free and equal society and resisted military dictatorship, imperialism, and oppression. It serves as a precedent for a new kind of museum: always open and accessible without being bound by its locality—a museum that embodies union in solidarity. Here, the solidarity of artists defines the museum's identity, and, like "spores," it enables flexible, self-sustaining practices of the arts. It is both a quiet resistance and a radical challenge to Western-centered art history and aesthetic standards as well as pre-existing notions of museums. This identity of the Museum of Solidarity converges with the political ideals of the Non-Aligned Movement (NAM), which envisioned a new global economic order and social equality—a new utopia. Additionally, the tenets of the NAM broadened the scope of the Third World project from a geographic indication of Asian, African, and Latin American regions to a cultural-political endeavor for a new world order, laying the foundation for autonomous cultural creation.

가능하게 했던 비동맹 운동과 제3세계 프로젝트 정신을 소환하며, 예술적 실천으로서의 연대 미술관 정신을 잇는다. 2020년대를 여는 이 시점에서 20세기 냉전 시대의 정치적 기획이었던 비동맹 운동을, 그것도 실패한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도처에 자리 잡은 갈등과 분열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와, 과거 독자적 노선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비동맹 운동 정신의 '친화력'에 있을지도 모른다. 또 한편으로는 한중일을 비롯하여 아세안의 국제 사회 역할이 최근 들어 대두되면서 아시아는 이제 21세기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연대를 상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자취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냉전 체제 세계사에 대한 인식의 틀 또한 획일적이다. 또한 우리는 현재 자본 금융 식민주의와 문화 제국주의가 팽배하고 불평등, 차별, 폭력이 여전히 당당한 세계에 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세계,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간절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의 집단 역사라 할 수 있는 비동맹 운동과 제3세계 프로젝트 정신은 '호랑이의 도약'(tigersprung)과 같은 현재성을 띠게 되며 우리에게 과거를 재방문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연대의 홀씨 전시는 예술 실천을 통해서 비동맹 역사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지금 여기서 재가동하며 현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u>연대의 홍씨</u> 전시는 제3세계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출현했던 다양한 예술 실천을 소개하고 반추하며, 비동맹 운동과 예술 실천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동시대성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본 전시는 이러한 야심 찬 포부를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면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다. 하지만 전시가 열리게 되기까지 많은 부침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대의 정신으로 여기까지 함께해 준 큐레이터들과 참여 작가들의 프로젝트 하나하나는 비동맹 역사를 반추하며 우리의 현재를 재조망하는 데 충분히 풍요롭고 총명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비동맹 운동을 문화 예술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보야나 피슈쿠르의 남반구의 성좌: 비동맹의 시학, 광주 스테이션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비동맹 운동을 호출하고 그 역사를 재조명하는지 질문하며 동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연대에 초점을 맞춘다. 발리 마흐루지/마지막 10년의 고고학의 아카이브로 구성된 유토피아 스테이지는 1960~1970년대 가장 "급진적인 다학제적 용광로"였던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를 재구성함으로써 민족 전통과 국제 아방가르드의 절묘한 만남을 재조명한다. 나임 모하이멘의 두 번의 회의와 한 번의 장례식과 서현석의 낡은 미래에서는 제3세계의 프로젝트들을 재방문하여 신자유주의적세계화 이후 드러난 긴장, 불화, 균열을 어떻게 벗어날 수

The Solidarity Spores exhibition is a call for the spirit of the NAM and the Third World project, which made possible resistance against colonialism and imperialism. the desire for freedom and the vision for equality. Through art practice, the exhibition follows suit to the spirit of the Museo de la Solidaridad. At the start of this decade in 2020, why are we looking back at the Non-Aligned Movement that many deem to be an unsuccessful utopian project of the 20th century Cold War era? The reason may lie in the need to escape the ubiquitous conflicts and divisions arising from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elective affinity" with the spirit of the NAM that sought to independently establish a new world order. Additionally, the global participation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s well a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s becoming more prominent, empowering new definitions of community and hopes for solidarity in Asia for the 21st century. However, there exists a lack of interest in the histories of individual Asian countries and the unilateral interpretations of world history in the Cold War era. Furthermore, we are still living in a world of capitalist colonialism and cultural imperialism, where inequality, discrimination, and violence run rampant. The need to imagine for the future a different world and a new community is, therefore, more pressing than ever. The spirit of the NAM and the Third World project, which comprise the collective history of Asia, takes a "tigersprung" in relevance to the present and justifies our retrospection. The Solidarity Spores exhibition is an art practice that brings back each of the components of non-aligned history and reactivates them in the here and now, to change the present and draw a blueprint for a new future.

The <u>Solidarity Spores</u> exhibition will reintroduce various art practices in Asia that emerg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World project,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M and art practice and its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The exhibition is not without flaws or inadequacies in doing full justice to this ambitious scope. But the curators and participating artists have kept up their spirit of solidarity, persisting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until the opening of this exhibition. Each and every one of their projects will fully and wisely guide us to reflect our non-aligned history and to rethink our present situation.

Addressing the Non-Aligned Movement from a cultural and artistic viewpoint, Bojana Piškur's Southern Constellations: The Poetics of the Non-Aligned, Gwangju Station focuses on the cultural solidarity between the Eastern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Vali Mahlouji/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s archival work A Utopian Stage recreates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the most experimental and unique art festival of the 1960s and the 70s, considered to be the most "radical multidisciplinary furnace" that juxtaposes the traditional and the avantgarde. Naeem Mohaiemen's Two Meetings and a Funeral and Hyun-Suk Seo's The Age of Future probe the idea of

있을지 고민한다.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이 이끄는 킥 더 머신 다큐멘터리 컬렉티브의 사운드 설치, 호 루이 안의 영상 시리즈, 에카 쿠르니아완과 백현진의 협업으로 구성된 퍼포먼스 프로젝트에서는 아시아의 전통, 정치, 사회 문화와 현재를 교차시키며 세계화 이후의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망을 제안한다. 그래픽 디자이너 13인/팀으로 구성된 공통 관심사: 젊은 아시아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대화를 위해와 국내 차세대 작가 12인/팀이 상상하는 일상을 위한 유연하고 느슨한 연대의 모임 일상의 연대: 차세대 작가들의 잔잔한 제안들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홀씨'로서의 연대를 실천한다. 본 전시를 계기로 비동맹 운동의 이해를 돕는 비동맹 독본이 아시아 최초로 출간되며, 전시 기간 중 열리는 연대의 학교에서는 이 독본을 중심으로 비동맹 운동과 제3세계 프로젝트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슈 또한 다룬다.

김성원 예술감독

the Third World project, searching for answers to divisions and conflicts resulting from neoliberal globalization. Performance Project brings together Asia's traditions, politics, cultures, and societies of today with implications for the post-globalization era through these works: the sound installations of Apichatpong Weerasethakul and Kick the Machine Documentary Collective; Ho Rui An's video series; and the collaboration between Eka Kurniawan and Bek Hyunjin. Common Interests: For a Conversation of Young Asian Graphic Designers features thirteen individuals or teams of graphic designers while Solidarity in Everyday Life: Simple Suggestions from the Next Generation of Artists presents twelve of the next generation Korean artists. The "spores" of their imagination show the flexible and easygoing kind of solidarity applicable for everyday life in the "here and now" as well as for the future. This exhibition made possible the publication of Non-Aligned Reader, the first of its kind in Asia that provides insight into the movement. An in-depth look at the publication will be made through a public lecture series, Solidarity School, to analyze the history of the Non-Aligned Movement and its current and future implications for Asia.

Sungwon Kim, Artistic Director













유토피아 스테이지는 다면적이고 개방적이며 진화하는 프로젝트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정의했던 예술가와 실험주의자 사이의 하이퍼모더니즘 네트워크가 보여 준 급진적 포부를 통해 모더니즘과 예술, 그리고 혁명이 교차하는 지점을 재조명한다. '인터내셔널 모더니티'라는 복잡한 공간을 탈식민주의 시대의 '제3세계주의자' 감성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장(주로 비유럽권)에서 지식 교류가 일어났던 문화지도를 추적한다. 이러한 세계 '재편' (reorientation)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시선은 재구성된다.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순환적 모델로, 동에서 동, 동에서 서, 남에서 동, 남에서 남으로의 문화적, 철학적, 정치적 협상에 관여함으로써,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세계 담론의 교류가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글로벌 사우스(the Global South)가 부상한 이후,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과 규모로 다양한 지역과 역사, 형태를 유동적으로 넘나들며 어떻게 예술의 교류가 가능했는지 탐구한다.

또한 급부상한 글로벌 사우스의 감성과 시급성이 전 세계 아방가르드와 결합했다고 보는 관점을 통해 20세기 모더니스트 보편주의가 보여 준 이상뿐만 아니라 현실의 굴곡도 함께 탐구한다.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u>유토피아 스테이지</u>는 1967년에서 1977년까지 10년간 치러진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를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자 연구 사례로 삼는다. 그러나 1979년부터 이란에서는 이 축제와 관련된 아카이브 공개를 금지했다.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는 다른 문화간의 교류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축제로 손꼽힌다. 여러 분야를 망라한 용광로처럼 아마도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축제였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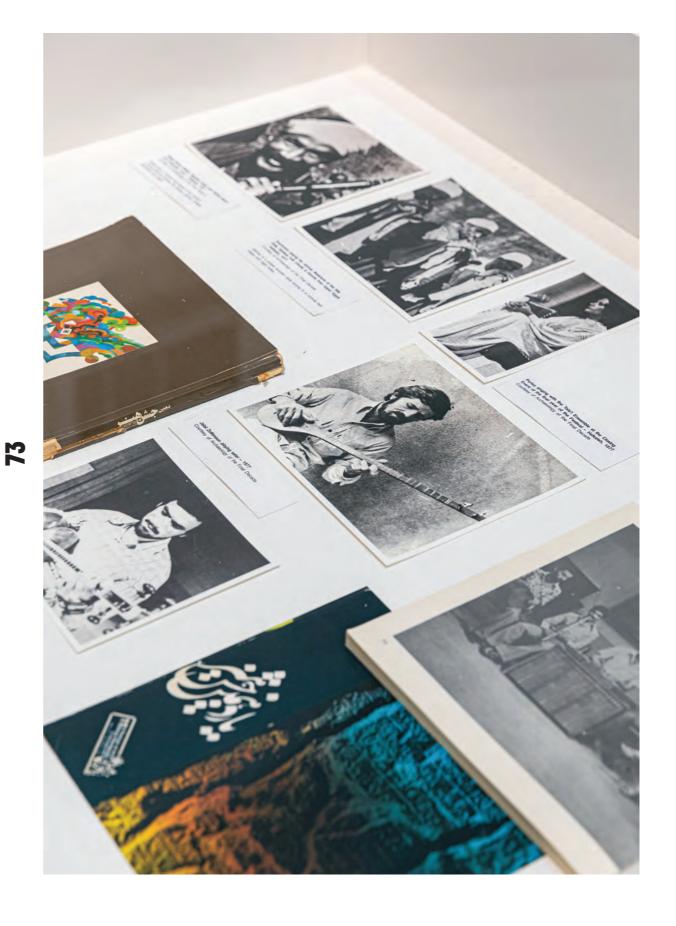
발리 마흐루지/마지막 10년의 고고학 기획

A Utopian Stage is a multi-faceted and open-ended, evolving project that revisits the intersection of modernism, art, and revolution through the radical aspirations of the hyper-modernist networks of artists and experimentalists which defined the 1960s and 1970s. This reconstruction of a complex space of international modernity is defined by the "third worldist" sensibilities of the immediate post-colonial period. The project traces a Cultural Atlas through which knowledge was exchanged across alternative (often non-European) plateaus. This process of global "reorientation" takes us through a reconstruction of the gaze—subverting the single "reading" of West to East into a more cyclical model, engaging in cultur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negotiations from East to East, East to West, South to East, South to South—constructing a panoramic exchange of global philosophical and artistic discourse. The project explores how in the aftermath of the collapse of European hegemonies and the rise of the Global South a fluid artistic exchange was possible across geographies, histories, and forms in ways and on a scale that had never been possible before.

The ideals, as well as, the highs and lows of 20th century modernist universalisms are explored from the vantage point of the sensibilities and urgencies of the emerging Global South and their alliances with the international avant-garde.

As a multipartite project, <u>A Utopian Stage</u> takes the decade-long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1967–1977) as its point of departure and as a case study. The festival, whose excavated archives have been banned in Iran since 1979,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uniquely transformative inter-cultural experiences, perhaps the most radical multi-disciplinary crucible of any commissioning festival in history.

Curated by Vali Mahlouji/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Thrust open the heavens and start anew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AOTFD) unearths the archival materials of the radical and virtually-forgotten decade-long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1967-1977). Over fifty years since its inception, A Utopian Stage explores the genealogies and implications of the festival's modernist ambitions, using it as a lens through which to reconsider the legacies of modernism's radical progressive arc. Embodying an optimistic drive to reimagine the world as an open universal arena for mutual exchange, the festival exalted in the dawn of the post-colonial age, aspiring to new solidarities and connections which marked the emergence of a new, possible world.

Situating the festival against the background of contemporaneous political events and movements like the Non-Aligned Movement and Pan-Africanism, we examine how Shiraz-Persepolis acted as a contested site of competing solidarities and proliferating visions of an interconnected world; and how, importantly, it facilitated the encounter between international and local avant-gardes. It is precisely the festival's pronounced rejection of a tension-less, homogenizing fusion of cultures, and its alignment with the principles of particularism, cultural difference, and alterity that demand our attention today. For these qualities make the festival not only a unique historical object but point to the still latent possibilities of the utopian impulses that marked the cross-cultural histories of art and anti-colonial struggle in the 1960s and 1970s.

The festival itself was targeted and attacked through moralising, religious accusations of decadence, obscenity, and blasphemy in 1977 by Islamists and was subsequently banned in Iran in 1979. Many of the artists involved were banned from work and its archives were destroyed or removed and remain banned to date.

AOTFD's painstaking retrieval of those archives aims to push back those accusations to reveal a seminal modernist event in line with the euphoric drives and ideals of progress, openness, emancipation, inclusivity, and the overarching notion of a unity of disunities.

비동맹 운동, 범아프리카주의 등 같은 시기에 있었던 다양한 정치적 사건과 움직임을 배경으로, 우리는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가 어떻게 다양한 연대가 경쟁하는 곳이자 서로 연결된 세계를 향해 비전을 확산하는 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아방가르드와 국제 아방가르드 사이의 만남을 어떻게 촉진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축제가 다양한 문화를 긴장감 없이 동질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명확히 선언한 사실, 그리고 특수주의와 문화적 차이, 그리고 타자성의 원칙을 지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는 단순히 독특한 역사적 유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문화 간에 교차되는 예술의 역사와 반식민지 투쟁을 이루어 낸 유토피아적 충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예술 축제는 1977년에 퇴폐, 음란, 신성 모독의 이유로 도덕적, 종교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공격받았으며, 결국 1979년에는 이란에서 금지되었다. 이 행사에 관여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활동을 금지당했고, 축제 아카이브는 파기되거나 사라져 지금까지도 공개가 금지된 상태다.

마지막 10년의 고고학이 각고의 노력 끝에 아카이브를 되살린 이유는 이러한 오명을 씻고, 이 축제가 진보의 이상과 추진력, 개방, 해방, 포용성, 그리고 분열된 것들의 통합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과 연결되는 모더니즘의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제4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포스터, 1970. 디자인: 고바드 시바.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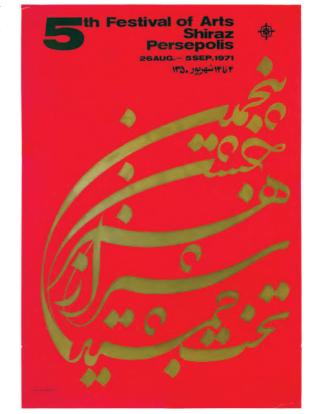
제5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포스터, 1971. 디자인: 고바드 시바.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제6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포스터, 1972. 디자인: 고바드 시바.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Poster of 4th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1970. Designed by Ghobad Shiva.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Poster of 5th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1971. Designed by Ghobad Shiva.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Poster for 6th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1972. Designed by Ghobad Shiva.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에피소드 1. 로컬 예술 형태의 활성화

EPISODE ONE. REINVIGORATING LOCAL ART FORMS

지역 토착 민중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민족 개별주의가 지닌 힘을 분출하는 일은, 당대의 현실을 발전시키려는 희망과 필연적으로 이어졌다. 탈식민주의 시대는 토착 문화 개념을 부활시키고 식민지 이전의 지적, 문화적 정통성 회복을 권장함으로써 식민지 경험과 단절하려는 급진적 행보를 특징으로 한다. 이 축제는 토착성을 해방시킴으로써 유럽 중심의 헤게모니에 기반하여 문화를 보는 관점에 도전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뒤흔들려 했다. 토착적 대안을 탐색하고 로컬예술의 형태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적 공간에 산소를 공급하고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재발견의 과정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초점을 둔 교류 작업으로 활성화되었다. 축제의 핵심 사명은 문화 생산과 정치의 무게 중심을, 현재 그리고 '인종적 타자'가 주도할 수 있는 타자의 재부상으로 옮기는 것이 되었는데, '제3세계 다시 쓰기'를 균등하게 하는 요청이었다.

'자기로의 귀환'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비본래적 시간 구조인 지평적 시간의 개념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 대신 순환적인 수직적 시간 모델을 수용했는데, 이 모델은 현대와 전통의 이분법 표상을 둘러싸는 동시에, 영속과 변화, 영원함과 새로움이라는 가치 사이의 변증법이 가져오는 풍요로움을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통 제례극인 '타지에'와 콤메디아 델라르테 스타일의 실내극 '루호지'로부터, 1968년에 새 시대의 획을 그은 두 작품인 아바스 날반디안의 <u>파주헤시(연구...)</u>와 비잔 모피드의 <u>샤레 게세(이야기의 도시)</u>가 처음 상연되면서 등장했던 문화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물결에 이르기까지, 로컬 작품들의 비평적 재평가는 전통과 현대에 걸쳐 광대한 계보학적 스펙트럼을 망라했다. Unlocking the potential of the indigenous and unleashing the power of ethnic particularism were inextricably linked to the dream of advancing contemporary reality. The immediate post-colonial period was marked by radical drives to sever the colonial experience by reinvigorating notions of nativism and encouraging intellectual and cultural returns to the authentic self. The festival consciously sought to destabilise and challenge the hegemonic Eurogenetic view of culture by emancipating the indigenous. It turned to oxygenation and edification of the cultural space by examining indigenous alternatives and putting local art forms through a self-confrontation. The process of rediscovery was galvanised per an exchange focussed on Asia and Africa. The core mission became to shift the centre of gravity of cultural production and politics towards the present and the re-emerging other, where the "ethnic other" could take the lead—an equalising call for a "third world re-writing."

The "return to the self" opposed the Heideggerian notion of horizontal time as an inauthentic temporal structure. It embraced, conversely, cyclical, and vertical models of time which circumvented dichotomous representations of the modern and the traditional and focused, instead, on achieving a fertile dialectical between values of permanence and change, eternal, and new.

Critical evaluations of local modes encompassed a wide archaic/contemporary genealogical spectrum ranging from indigenous "ta'zieh" ritual performances and commedia dell'arte style "ru-howzi" chamber pieces to a new wave of culturally unconventional expressions, which saw the premiering of two seminal pieces in 1968—Abbas Nalbandian's Pazhouheshi (Research...) and Bijan Mofid's Shahr-e Qesseh (City of Tales).





주 축제 창립 연도에 페르세폴리스에서 열린 클래식 연주회, 1967.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 타지에 호르, 이란 수난극, 코자스테 키아와 파르비즈 사이야드 (제작자) ─ 노천극장, 1967.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이란 수난극에 참여한 카르나 연주자들. 카르나는 기원전 4세기부터 있었던 고대 의식용 악기이다. 이 악기는 소리가 크고, 일반적으로 의식이 행해지는 동안에 그룹 혹은 앙상블로 연주된다. 가장 오래된 것은 이란 파르스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란 다수의 지역에 존재한다.

Classical Concert at Persepolis in the inaugural year, 1967.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leftarrow

Ta'zieh Horr, Iranian passion play, Khojasteh Kia and Parviz Sayyad (producers)—Open Air Theatre, 1967.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Karna players accompanying the Iranian passion play. Karna is an ancient ceremonial instrument possibly dating back to 4th century BCE. It produces a very loud sound and is usually played during rituals in groups or ensembles. The oldest are documented from Fars, but they exist in many areas of Iran.



 \left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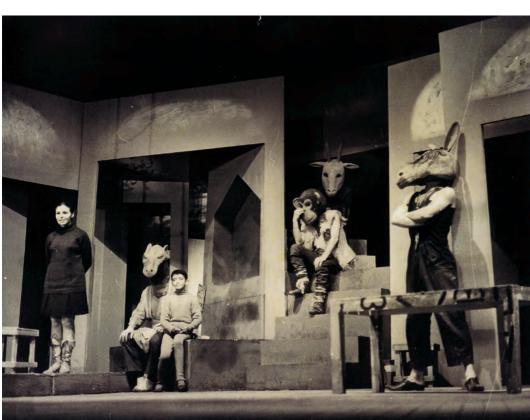
사례 게세(이야기의 도시) 포스터, 1968. 디자인: 고바드 시바. 제2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커미션.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 <u>샤레 게세(이야기의 도시),</u> 비잔 모피드(극작가 및 감독) — 유니버시티 홀, 1968. 세계 초연. 제2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커미션. 다리우쉬 하지르, 비잔

모피드 재단 제공.

Poster of Shahr-e Qesseh (City of Tales), 1968. Designed by Ghobad Shiva. Commissioned by 2nd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파주헤시(25대 지질 시대 화석에 관한 현대적이고 심오하며 중요한 연구), 아바스 날반디안(극작가), 아르비 오바네시안(감독)— 노천극장, 1968. 세계 초연. 제2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커미션.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Pazhouheshi zharf va setorg va no dar sangvareha-ye dowre-ye bist-o-panjom-e zamin shenasi (A Modern, Profound and Important Research into the Fossils of the 25th Geological Era), Abbas Nalbandian (playwright), Arby Ovanessian (director) — Open Air Theatre, 1968. World Premiere and Festival of Arts commission.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에피소드 2. 소리로 이루는 평등, 통합, 그리고 보편

EPISODE TWO. EQUALISING, UNIFYING, AND UNIVERSALISING THROUGH SOUND

1969년, 이 축제는 그전까지의 문화 헤게모니와 수직 계층 구조에 도전하는 기조를 만들어 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는 시간적, 미학적으로 다양성을 띠며 공존하는 희곡, 음악 및 공연 예술이 공유하는 뿌리에 관해 예술가들이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축제가 테마로 선택한 것은 '타악기'였다. 유럽과는 다른 표현 방식이 고도로 발달한 보물 창고와 같은 영역이라고 판단,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토속 문화에서 타악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오래된 악기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리듬은 모든 음악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능적 추동과도 잘 어우러졌다. 축제는 통합과 보편의 개념을 새로운 규범으로 하여,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의 역동적인 진보로 소리를 통한 국제적인 서사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타악기가 지닌 기술과 세련미에 주목했다.

이 주제하에 다양하고도 유동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발리 가믈란 음악의 형식 중 하나인 공 크바르를 공연하는 음악인과 무용수, 인도 음악가 데바브라타 초두리와 페야즈 칸, 인도 전통 무용 카타크 무용수 우마 샤르마, 이란 전통 타악기 톰바크 연주자 잠시드 셰미라니와 호세인 테흐라니, 미국 재즈 밴드 맥스 로치 퀸텟 앤드 애비 링컨, 그리고 아시아에서 첫선을 보인 르완다 드럼 앙상블 등이 여기에 참여했다. 실험 음악가 야니스 크세나키스가 작곡가로 위촉받아 축제 현장에서 사용할 페르세파사라는 곡을 만들었다. 이 곡은 프랑스 타악기 그룹 '레 페르퀴시옹 드 스트라스부르'와 협연으로 축제 폐막식에 맞춰 페르세폴리스 유적에서 초연되었다.

By 1969, the festival became determined to create an attitude of defiance against the dominant cultural hegemonies and hierarchies of times before. Circumstantially, the festival designed opportunities for artists to investigate shared roots of drama, music, and performance around coexisting heterogeneities, temporally, and aesthetically.

The festival chose "Percussion" as its theme in order to exploit a repository where non-European expressions were highly developed. Percussive forms have been identified as the oldest and most basic of instrumental types, indigenous to all cultures. Rhythm, as the most fundamental ingredient to all music, signified a return to basics and resonated with elemental instinctual drives. The Festival insisted on a ruthless and dynamic progression, constituting an international sonic narrative—one that specifically emphasised the skill and sophistication of South Asian and African percussives—with notions of unification and universalism as the new norm.

The theme facilitated a varied and fluid programming that included Balinese gamelan Gong Keybar musicians and dancers, Indian musicians Debabrata Chaudhuri and Faiyaz Khan, kathak dancer Uma Sharma, Iranian tombak players Jamshid Shemirani and Hossein Tehrani, American Max Roach Quintet & Abbey Lincoln, and the Rwanda Drum Ensemble (on its first Asian appearance). Experimental musician Iannis Xenakis was commissioned to create Persephassa, a site-specific composition, which premiered in the ruins of Persepolis with the Les Percussions de Strasbourg for the closing event.





맥스 로치 퀸텟 & 애비 링컨 — 노천극장, 1969.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고대 유적지에서 맥 로치 작시도 셰미라니 호세인

고고학 제공. 고대 유적지에서 맥스 로치, 잠시드 셰미라니, 호세인 테흐라니의 합동 즉흥 연주에 애비 링컨의 보컬이 더해진 공연.

↑ 주르-카네 의식 리허설 ─ 페르세폴리스, 1969. 말리에 레트랑게,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주르-카네는 이란 고대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형태의 의례적 스포츠이다. 선수들은 타악기의 리듬에 맞춰 경기한다.

Max Roach Quintet & Abbey Lincoln—Open Air Theatre, 1969.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Max Roach, Jamshid Shemirani and Hossein Tehrani a jam with Abbey

Lincoln in the ancient ruins.

Ceremonies of the Zour-khaneh in rehearsal — Persepolis, 1969.
Courtesy of Malie Letrange and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Zour-khaneh is a traditional form of ritual sport with archaic roots in Iran. The sportsmen exercise to the rhythm of percussion.



카타크 인도 고전 무용을 공연하는 우마 샤르마-노천극장, 1969.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공연은 무갈 양식의 시인 하페즈에 대한 보컬 헌사로 시작되었다.

발리 가믈란 연주 & 전통 춤: 레공 케라톤과 타리 토펭 가면 무용수-노천극장, 1969. 말리에 레트랑게,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페르세파사, 야니스 크세나키스 (작곡가), 레 페르퀴시옹 드 스트라스부르(스트라스부르 타악기 그룹) - 페르세폴리스, 1969.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축제와 프랑스 문화부의 공동 커미션으로 제작된 6명의 타악기 연주자를 위한 작품. 1969년 예술 축제

폐막식에서 세계 초연.

Uma Sharma performing Kathak Classical Indian Dance—Open Air Theatre, 1969.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The performance began with a vocal tribute to the poet Hafez in the Mughal style.

Balinese Gamelan & Traditional Dances: Legong Keraton and Tari Topeng Masked Dancers-Open Air Theatre, 1969. Courtesy of Malie Letrange and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Persephassa, Iannis Xenakis (composer), Les Percussions de Strasbourg-Persepolis, 1969.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A piece for six percussionists, co-commissioned by the Festival and 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 World Premiere at the Festival of Arts for the closing event of 1969.







에피소드 3. 의례가 지닌 보편적이며 황홀한 힘에 자유를

EPISODE THREE. EMANCIPATING THE UNIVERSAL ECSTATIC POWERS OF RITUAL

1969년 행사의 탁월한 성공에 힘입어, 이 축제는 낡은 질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문화적 질서를 향한 열망과 함께 새롭게 진행되었다. 1970년 행사는 '연극과 제의'라는 주제로 조직되었다. 제의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보편적이며 황홀한 힘이 풀려날 뿐만 아니라, 연극의 본질을 더 잘 깨닫게 해 준 집단 무의식의 세계 역시 더욱 깊이 통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카타르시스와 더불어, 희곡이 표현하는 감정의 핵심과 이어지려는 궁극적 이상이 모두를 결속하는 숨은 동력이었다. 게다가 '수행적인'(performative) 대신에 '원시적인'(primitive)을 대체 텍스트로 정하였다. 이는 유럽의 전통에서 벗어나 더욱 순수하게 '가난한 연극'으로 향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행사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였다. 폴란드 출신의 유명 연출가 예지 그로토프스키가 공연한 중세 스페인 극작가 칼데론 원작의 <u>더 콘스턴트 프린스</u>, 마힌 타자도드와 아르비 오바네시안이 연극으로 각색한 중세 이란 시인 고르가니의 시 <u>비스오라민</u>, 빅토르 가르시아 감독과 누리아 에스페르트 극단이 만든 장 주네의 희곡 <u>하녀들</u>, 페터 슈만이 감독한 브레드 & 퍼핏 시어터의 <u>파이어</u>, 무슬림 이븐 아낄을 위한 타지에, 라비 샹카르의 시타르 연주와 야미니 크리슈나무르티의 인도 전통 무용 등이 소개되었다.

제4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의 주제는 '제의의 연극'이었다. 아시아는 여전히 다양하고 풍성한 제의와 의례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으며, 여기에 오랫동안 무관심하던 유럽 역시 아시아 예술에 담긴 자신의 뿌리를 재조명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한 선택이었다 할 수 있다. 시라즈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회합의 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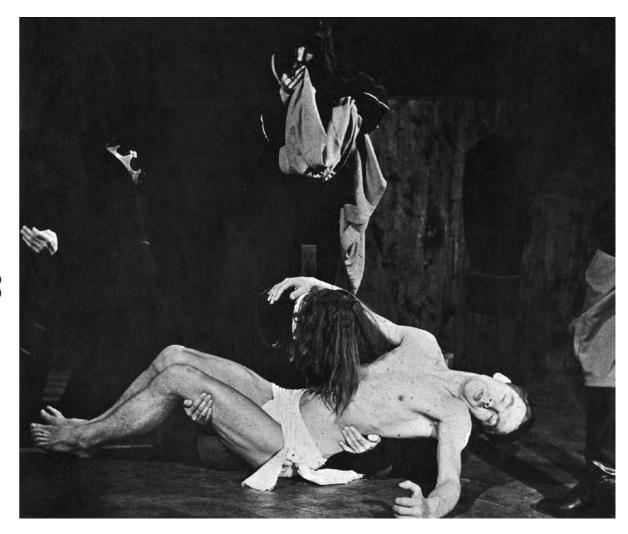
제8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프로그램,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아카이브

On the cuff of the transcendental successes of 1969, the festival proceeded to further disentangle itself from the old order and to write scripts anew with aspirations towards a new cultural order. The 1970 festival was organised around the theme of "Theatre and Ritual." Investigations into ritual promised release of universal ecstatic powers and insight into the unconscious world of the collective on the basis that it brought theatre closer to its essence. Ideals of catharsis and a connection with the emotional core of drama were unifying underlying drives. Furthermore, the performative, represented by the "primitive" was pitched to supplant the textual, as a deliberate retraction from the European tradition, towards a purer "poor theatre."

A wide range of expressions included: influential Polish creator Jerzy Grotowski with Calderon's The Constant Prince; adaptation of Gorgani's verse Vis-o-Ramin, by Mahin Tajadod and director Arby Ovanessian; Jean Genet's Les Bonnes by director Victor Garcia and Compañia Núria Espert; Fire, by Bread & Puppet Theatre directed by Peter Schumann; ta'zieh of Moslem ibn Aqeel; classical sitar by Ravi Shankar and classical Indian dance by Yamini Krishnamurti.

"Ritual theatre" was the theme of the Fourth Festival—an appropriate choice since Asia still remains a rich storehouse of ritual and ceremony and after a long period of lack of interest, the West is once again rediscovering its roots in Asian arts. Shiraz was the ideal meeting place for the 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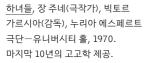
 8th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Programme,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Archives 더 콘스턴트 프린스, 칼데론 (극작가), 예지 그로토프스키(감독), 연극 실험실 — 델고샤 파빌리온, 1970.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델고샤 가든 파빌리온의 각 공연은 40명의 소규모 청중으로 제한되었다. The Constant Prince, Calderon (playwright), Jerzy Grotowski (director), The Laboratory Theatre—Delgosha Pavilion, 1970.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Each performance at the Delgosha Garden Pavilion was limited to an intimate audience of forty.



비스오라민, 마힌 타자도드
(극작가), 아르비 오바네시안
(감독) —고르가니의 11세기
페르시아 시의 연극 각색본 — 페르세폴리스, 1970.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이 공연은
'연극과 제의'가 주제였던 해의 축제
개막식이었다. 페르세폴리스의
아파다나 계단 앞에서 진행되었고, 석양의 움직임과도 조화를 Vis-o-Ramin, Mahin Tajaddod (playwright), Arby Ovanessian (director)—A play adaptation of Gorgani's 11th century Persian verse—Persepolis, 1970.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The production was the opening event of Festival's Theatre and Ritual year, in front of the Apadana staircase at Persepolis, and was coordinated with the movement of the setting sun.







Les Bonnes, Jean Genet (playwright), Victor Garcia (director), Compañia Nuria Espert— University Hall, 1970.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파이어, 페터 슈만(창작자 및 감독), 브레드 & 퍼핏 시어터 TV 홀, 1970.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브레드 & 퍼핏은 거대한 인형을 이용하여 실험적인 공연을 했던 미국 극단이었다. 이 극단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 뒤 정치적 억압에 대한 항의서를 낭독하며 시작되었다.

Fire, Peter Schumann (creator and director), Bread & Puppet Theatre—TV Hall, 1970.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Bread & Puppet was an experimental American theatre company, employing giant puppets. Each of their performances began with the reading of a statement of protest against political oppression followed by the distribution of bread amongst the audience.

에피소드 4. 오개스트의 탄생

EPISODE FOUR. CREATING ORGHAST

이 축제는 사원으로서의 갤러리, 예언자로서의 예술가, 그리고 유물로서의 작품이라는 엄격한 개념을 해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상이 단지 공연될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포럼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또 구현되는 예술의 순수한 영역을 확립하려는 희망을 가지고서 말이다. 이는 이상적인 헤테로토피아적 모더니스트의 장이다.

제4회 축제에서 경험한 '연극과 제의'에 이어 1971년에는 연극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작품 <u>오개스트</u>가 탄생했다. <u>오개스트</u>는 피터 브룩, 아르비 오바네시안, 안드레이 세르반과 제프리 리브가 공동으로 연출했으며, 시인 테드 휴스와 언어학자이자 극작가인 마힌 타자도드가 희곡을 썼다. 축제를 위해 제작된 작품이며, 파리에 위치한 국제 연극 연구 센터 (CIRT) 최초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고대로 돌아가겠다는 시도하에, 타자도드와 휴스는 중기 페르시아어인 아베스타어와 고대 그리스어에 기반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 <u>오개스트에</u> 사용했다. 현대의 청중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만들어 낸 주된 의도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없애 버리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성취는 이성적 담론을 초월하여 청중을 대안적인 의식 모드에 이르게 했을 것이고, 이는 정체되고 고정된 정체성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정확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열려 있고 청중을 끌어들이는 언어를 창조해 우리가 탐험하려는 잃어버린 세계로 그들을 초대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 그런 언어의 예로 음악을 들 수 있다. 수학적 정확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수수께끼로 열려 있으며 곧바로 분석할 수 없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음악이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그 근원 수준까지 쇠퇴해,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음악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상태라고 생각해 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굴해 보여 주려는 것이다. 차이가 발생해 분화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은 언어, 우리가 선택한 소재 내면의 삶과 가깝지만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표현되는 그런 언어 말이다.

테드 휴스와의 인터뷰, 앨버트 헌트·제프리 리브,
 디렉터스 인 퍼스펙티브, 피터 브룩(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 1995), 157쪽에서 인용

The festival can be seen to deconstruct the draconian concept of gallery as temple, artist as prophet and art as relic in hopes of establishing a realm of purity for art, where ideas are not only performed, but produced, reproduced, and embodied in public forum. It is the ideal heterotopic modernist stage.

The experiences of "Theatre and Ritual" at the 4th Festival informed the creation of the seminal work Orghast in 1971. Orghast was collectively directed by Peter Brook, Arby Ovanessian, Andrei Serban and Geoffrey Reeves, and written by poet Ted Hughes and linguist and dramaturg Mahin Tajadod. It was a site-specific commission and first major research project for the Paris-based International Centre for Theatre Research.

In a return to ancients, Tajadod and Hughes invented a language for Orghast based on Middle Persian Avestan and ancient Greek. Incomprehensible to the modern audience, its primary intention was the omission of text as carrier of symbolic meaning. Attainment of meaning would transcend the need for rational discourse and bring the audience to alternate modes of consciousness, forming a new community beyond any fixed, stable identity.

The point was to create a precise but open and inviting language, inviting to a lost world we wanted to explore. Music is one such language—mathematically precise, but completely mysterious and open, giving access to a deeper world, closed to direct analysis.... If you imagine music buried in the earth for a few thousand years, decayed back to its sources, not the perfectly structured thing we know as music, then that is what we tried to unearth. A language belonging below the levels where differences appear, close to the inner life of what we've chosen as our material, but expressive to all people, powerfully, truly, precisely.

 Ted Hughes interview, quoted in Albert Hunt and Geoffrey reeves, <u>Directors in Perspective</u>, <u>Peter Brook</u>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 157.



오개스트 제1장, 피터 브룩, 아르비 오바네시안, 제프리 리브, 안드레이 세르반(4인 공동 연출), 테드 휴스, 마힌 타자도드(2인 공동 각본), 칼데론, 세네카, 아칠레, 레온 찬트에서 발췌하여—페르세폴리스, 1971. 프랑스 국제 연극 연구 센터 (CIRT), 축제와 프랑스 문화부 공동 커미션, 포드, 굴벤키안 재단 그리고 유네스코 참여. 세계 초연, 예술 축제 커미션.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Orghast Part I, Peter Brook, Arby Ovanessian, Geoffrey Reeves, Andrei Serban (directors), Ted Hughes, Mahin Taiaddod (playwrights), with excerpts from Calderon, Seneca, Achile, Leon Chant-Persepolis, 1971. International Centre for Theatre Research, commissioned by the Festival and 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Ford and Gulbenkian Foundations and UNESCO. World Premiere commissioned by the Festival of Arts.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오개스트 제2장, 피터 브룩, 아르비 오바네시안, 제프리 리브, 안드레이 세르반(4인 공동 연출), 테드 휴스, 마힌 타자도드(2인 공동 각본), 칼데론, 세네카, 아칠레, 레온 찬트에서 발췌하여 — 나크셰 로스탐, 1971. 프랑스 국제 연극 연구 센터(CIRT), 축제와 프랑스 문화부 공동 커미션, 포드, 굴벤키안 재단 그리고 유네스코 참여. 세계 초연, 예술 축제 커미션.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Orghast Part II, Peter Brook, Arby Ovanessian, Geoffrey Reeves, Andrei Serban (directors), Ted Hughes, Mahin Tajaddod (playwrights), with excerpts from Calderon, Seneca, Achile, Leon Chant—Nagsh-e Rostam, 1971. International Centre for Theatre Research, commissioned by the Festival and 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Ford and Gulbenkian Foundations and UNESCO. World Premiere commissioned by the Festival of Arts.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에피소드 5. 현대화하는 보호주의자와 의례화하는 모더니스트가 어울려 모인 집합체의 강화

1970년까지 이 축제는 공연과 시각, 그리고 소리를 통한 보편주의적 유토피아 모더니티를 추구하고, 제1세계와 제 3세계를 오가며 메타 정치학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통성을 추구하며 토속 제례, 전통 및 민속 연구를 근간으로 삼는 '제3세계'의 모더니스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모더니티를 통해 개별 전통이 갖는 한계와 안정성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를 유동적으로 오가는 전복적 아방가르드에 관심을 두고 발견과 해체, 전향의 과정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축제는 지역의 전통, 민속 및 제의가 섞인 토양에 뿌리내린 '제3세계주의자'의 현대화 욕구, 그리고 유럽의 예술적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례화 및 타 문화와의 만남을 실험하려는 국제적 모더니스트들을 확실하게 통합하는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널리 공유된 감성은 전통적인 감정의 경로가 아니라, 환희와 카타르시스의 힘을 분출하는 자연적 조화를 통해 표현되었다.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는 이처럼 놀랍도록 비상한 연구와 조사의 기반이었으며,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로 조직되었다.

로스탐과 소라브, 케랄라 칼라만달람의 카타칼리 — 페르세폴리스, 1972.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피르다우시의 대서사시인 <u>샤나메</u>를 기반으로 한 남인도 춤극. Rostam & Sohrab, Kathakali from Kerala Kalamandalam— Persepolis, 1972.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South Indian dance drama, based on Ferdowsi's epic story in the Shahnameh.

EPISODE FIVE. CONSOLIDATING A NEXUS FOR MODERNISING NATIVISTS MINGLING WITH RITUALISING MODERNISTS

By 1970, the festival was operating meta-politically across the first and third worlds, pursuing universalist utopian modernity through performance, sight, and sounds. It actively supported modernisers from the "third world" who were keen to base their investigations on native rituals, traditions, and folklores, in the pursuit of authenticity. It juxtaposed that process of discovery, deconstruction, and reorientation with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ly fluid and subversive avant-garde, whose modernity sought to liberate itself from the constraints and stabilities of its individual traditions.

The festival became an authentic nexus for the "third worldist" modernising drives that rooted themselves in a compost of local tradition, folklore, and ritual and the international modernists who were experimenting with ritualizations and encounters with other cultures in an effort to break away from the strictures of European artistic tradition.

A broadly shared sensibility of these investigators was expressing not through conventional emotional routes but by striking elemental chords that released cathartic and ecstatic powers. The festival became, by design and by default the bedrock of exactly such preternatural investig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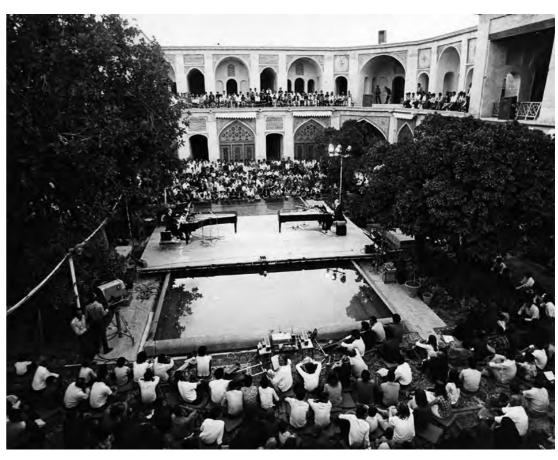




← <u>조율</u>, 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젠 (작곡가)─페르세폴리스, 1972. 슈토크하우젠 음악 재단 제공. 6명의 성악가와 6개의 마이크를 위해 작곡된 곡.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만트라ー사라예 모시르, 1972. 작곡가: 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젠. 피아니스트: 알폰스 콘타르스키, 알로이스 콘타르스키. 슈토크하우젠 음악 재단 제공. Stimmung, Karlheinz
Stockhausen (composer) —
Persepolis, 1972. Courtesy of
Stockhausen-Stiftung für Musik.
Piece composed for six vocalists
and six microphones.

Mantra, for two Pianos— Saray-e Moshir, 1972. Composer: Karlheinz Stockhausen. Pianists: Alfons Kontarsky, Aloys Kontarsky. Courtesy of Stockhausen-Stiftung für Musik.



에피소드 6. 아방가르드 흡수를 통한 지식 전파 방식의 전복

1972년 이 축제에서, 아시아의 전통에 영향을 받아 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자 노력하던 유럽과 미국 출신의 유명 실험 예술가 몇 명을 소개했다. 실험 음악가 존 케이지는 선불교 학자 스즈키 다이세쓰 밑에서 수학한 바 있다. 주역에서 영감을 얻어 무용가 머스 커닝햄과 함께 우연과 불확정성의 개념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젠이 작곡한 음악은 힌두 철학과 이어지는 내면의 고행과 영성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행사는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지식의 역전파를 강조하도록 기획되었으며, 아시아 철학이 유럽과 미국의 모더니즘 운동에 미친 영향의 깊이와 지속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축제 감독들은 앙토냉 아르토의 이론과 그 적용을 도입하며 이전 역사에 유사하게 존재했던 문화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과정을 그렸다. 발리 무용에 관한 고찰에 근거한 아르토의 이론은 언어보다는 기호와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었다.

최근 제3세계의 참여로 새로운 관점이 열렸다... 아르토의 비전이 추구하는 목표를 전 세계의 연극이 점차 달성해 가는 것 같다... 문화들 사이를 오가는 청중을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방가르드의 중요한 추세다.

제8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프로그램
 (1974),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아카이브

EPISODE SIX. CO-OPTING THE AVANTGARDE IN REVERSING THE TRANSMISSIONS OF KNOWLEDGE

In 1972, the festival brought several distinctive European and American experimental practitioners into proximity with the Asian traditions to which they were indebted. John Cage had studied with Daisetz Teitaro Suzuki, a theologian of Zen Buddhism. With Merce Cunningham they drew inspiration from I Ching (Book of Changes) to explore notions of chance and indeterminacy. Karlheinz Stockhausen's compositions aimed at reaching a state of inner ascetism and spirituality correlating with philosophies of Hinduism.

The curation underscored the reverse transmission of knowledge from the periphery to the centre, highlighting the depth and continuity of Asian philosophical influence on European and American modernist movements. The festival directors drew historical parallels with earlier intercultural influences, referring to Antonin Artaud's development of theories and practices that investigated a relationship to signs rather than words, based on his observations of Balinese dance.

With the recent involvement of the Third World, a new perspective has been opened... World theatre seems even closer to achieving the goals set by the visionary Artaud... An important trend of the avant-garde is devoted to developing this kind of expression for an intercultural aud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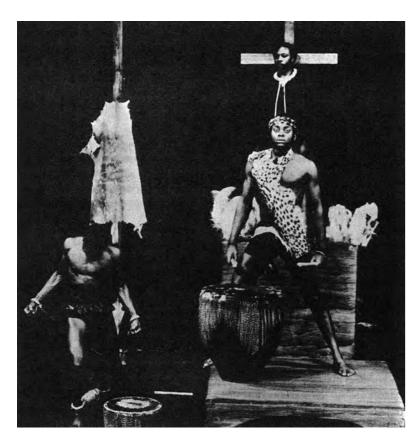
 8th Festival of Arts Programme (1974),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Archives

칼리굴라, 알베르 카뮈(극작가), 아르비 오바네시안(감독), 카르가헤 나마예시(연극 워크숍) — 페르세폴리스, 1974. 메흐디 콘사리,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아르비 오바네시안이 만든 무대 디자인은 격자형 런웨이로 관객은 빈 공간의 무대 아래쪽에 자리하였다. 공연 무대 측면에서 비추는 조명으로 인해, 잘려 나간 무수한 머리(관객의 머리)로 이루어진 바다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무대 위에 만들어 냈다. Caligula, Albert Camus (play-wright), Arby Ovanessian (director), Kargah-e Namayesh—Persepolis, 1974. Courtesy of Mehdi Khonsari and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The set design by Arby Ovanessian consisted of a grid of runways, with the audience sunken into the empty voids. Side-lighting the performance space created a vision of a sea of severed heads (those of the audience), above which the performance took place.











4

렌가 모이, 로버트 세루마가(극작가 및 감독), 아프리카 춤극, 우간다 국립 극장-사라예 모시르, 1975.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 호라 섹스타(여섯 번째 시간), 아슈르바니팔 바빌라 창작 및 감독, 이란 국영 라디오 & 텔레비전 연극 워크샵─페르세폴리스, 1977. 바흐만 자랄리 에스테이트,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

Renga Moi, Robert Serumaga (playwright and director),
African dance drama, National Theatre of Uganda—Saray-e
Moshir, 1975.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Hora Sexta (The Sixth Hour),
play created and directed by
Assurbanipal Babilla, National
Iranian Radio & Television
Theatre Workshop—Persepolis,
1977. Courtesy of Bahman Jalali
Estate and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 한국 민속 예술단 포스터─테헤란, 루다키 홀.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7

인도 고전 춤, '카마 데브' 포스터, 테헤란 시 극장, 1973. 디자인: 고바드 시바. 제7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커미션.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Poster of Korean Folk Arts
Troupe—Tehran, Roudaki Hall.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Poster of Indian Classical Dance, Kama Dev, Tehran City Theatre, 1973. Designed by Ghobad Shiva. Commissioned by 7th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POPULAR THEATRE

SILL LE CLE

CILL LE CLE

C

'제3세계 연극-제2회 세계 축제와 회의' 포스터, 1973. 디자인: 고바드 시바. 제7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커미션.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수 인도 고전 춤, '알라멜 발리' 포스터, 테헤란 시 극장, 1973. 디자인: 고바드 시바. 제7회 시라즈- 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대중극 포스터, 1977. 디자인: 고바드 시바. 제11회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 커미션.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제공. Poster of Third World
Theatre—2nd World Festival
and Conference, 1973. Designed
by Ghobad Shiva. Commissioned
by 7th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Poster of Indian Classical
Dance, Alarmel Valli—Tehran
City Theatre, 1973. Designed by
Ghobad Shiva. Commissioned
by 7th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Poster for Popular Theatre, 1977. Designed by Ghobad Shiva. Commissioned by 11th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Courtesy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에피소드 7. 아프리카 사례의 홍보

EPISODE SEVEN. PROMOTING THE CASE OF AFRICA



이 축제는 아프리카의 문화적 해방과 아프리카 토속 무용 및 연극의 포용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국제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다. 익히 알려진 두로 라디포를 포함, 탈식민지의 신세대 아프리카 극작가들은 토속적 전통과 신화학에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이들 연구는 문화 간 담론 속에 자리한 국가 부흥 운동의 동력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축제의 방향과도 조화를 이뤘다. 1960년대 초에 독립을 쟁취한 세네갈, 나이지리아, 르완다, 그리고 우간다 출신 예술가들은 제의와 동시대적 문화표현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1970년 제4회 축제에서는 세네갈 국립 발레단이 전통 무용과 음악을 선보였으며, 1976년 행사에는 세네갈 리릭 앙상블이 참여했다. 1973년 무대에 올랐던 두로 라디포의 유명 오페라 오바 코 소는 나이지리아 요루바족의 신화에 등장하는 천둥 번개의 신, 샹고의 이야기를 극화한 작품이다. 로버트 세루마가의 현대 무용극 <u>렝가</u> 모이는 우간다 아출리족의 전설을 모티브로 했다.

이들 예술가가 참여하면서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는,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 흑인 예술제(1966),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범아프리카 문화 축제(1969) 등과 더불어 아프리카 현대 예술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서 문화 간 대화의 장을 열었다.

유토피아 스테이지 전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윌리엄 그리브스 감독의 마스터 필름 제1회 세계 흑인 예술제를 마지막 작품으로 선보이는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 예술인들을 위한 모임의 장을 만들고자 한 레오폴 세다르 상고르 세네갈 대통령의 제창으로 1966년 봄에 다카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 행사를 기록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의뢰를 받아 제작됐다. 유토피아 스테이지는 시라즈-페르세폴리스와 다카르에서 열린 두 예술 축제를 평행하게 그린다. 당시의 시대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황홀감을 이렇게 포괄하고 간추려 열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 스테이지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영화에서 그리브스 감독은 현대 아프리카 예술을 회상하며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풍부한 상징과 기능을 지닌 선조의 예술에서 영감을 얻을 때가 많다. 선조들에게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인간 정신을 더 높은 경지의 의식으로 고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선조들은 예술이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각성시킬 때 비로소 그 목적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시공간을 오가는 우주의 몸짓 속에서 인간은 그 비밀을 풀고자 끊임없이 시도한다. 끝없는 침묵의 영적인 세계, 우리 앞에서 영원히 손짓하는 세계의 그 비밀을." The festival became one of the first international platforms with a focus on African cultural emancipations and the inclusion of indigenous African forms of dance and drama. A new post-colonial generation of African dramatists, including the well-known Duro Ladipo, drew upon indigenous traditions and mythologies. These investigations focused on national revivalist drives within an intercultural discourse which resonated with the directions of the Festival. Artists from Senegal, Nigeria, Rwanda, and Uganda, all of which gained independence in the early 1960s, represented ritual and contemporary cultural expressions.

The Ballet National du Sénégal participated with traditional dances and music in the 4th Festival in 1970, followed by L'Ensemble Lyrique du Senegal in 1976. Duro Ladipo's famous opera Oba Ko So—a dramatisation of the Yoruba story of Shango the King of Thunder—was staged in 1973. Robert Serumaga's contemporary dance-drama Renga Moi returned to the legend of Acoli.

With the inclusion of these artists, the Festival implicitly entered into an intercultural dialogue with contemporaneous African platforms, most notably the First World Festival of Negro Arts (1966) in Dakar and the Pan-African Cultural Festival (1969) in Algiers.

A Utopian Stage exhibition deliberately closes with The First World Festival of Negro Arts a master film by African-American filmmaker William Greaves, which was officially commissioned to document the seminal coming together that happened in the spring of 1966 in Dakar, Senegal, at the initiation of Léopold Sédar Senghor, the country's president. A Utopian Stage draws a parallel between festivals at Shiraz-Persepolis and Dakar. This passionate account that encapsulates the spirit of the time and the euphoria of togetherness that is at the core of A Utopian Stage project.

In the film, William Greaves reflects on the arts of modern Africa when he declares, "often you draw inspiration from the art of your ancestors—an art rich in symbol and function. To them, art was never an end to itself but a means by which the human spirit is lifted to ever higher planes of consciousness. To the ancestors, only when the spiritual part of man was awakened had art served its basic purpose. For in his cosmic dance in space and time man is forever seeking to unravel the secrets. and the infinite and silent world of the spirit, a world that is forever beckoning him."





발리 마흐루지 /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VALI MAHLOUJI /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문화지도는 다른 장(주로 비유럽권)에서 지식 교류가 일어났던 전 세계 현대성의 복합적 공간을 추적한다. 이러한 세계 '재편'(reorientation)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시선은 재구성된다.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순환적 모델로, 동에서 동, 동에서 서, 남에서 동, 남에서 남으로의 문화적, 철학적, 정치적 협상에 관여함으로써,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세계 담론의 교류가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지게 된다.

상호 작용이 가능한 진행형 문화지도는 초월적 국제주의, 급진적 해방, 해방 연대 등 보편적인 유토피아를 추구했던 수많은 사건과 그 이상을 이루고자 했던 야심과 모순을 그려 냄으로써, 길었던 20세기 역사의 편린들을 상기시킨다.

20세기 중반에 이르자, 옛 유럽의 제국들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기회와 만남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 지도는 당시에 나타났다 사라진, 끊임없이 진화하는 꿈과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살아 있는 오브제로 의도된 문화지도는 다시 설치될 때마다 변형된다. 이 작품이 연상시키는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이 작품은 고정되지 않은 미완의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서, 설치되는 공간에 따라 활성화된다. 이런 점에서 문화지도는 살아있는 오브제다. 관객들은 각자의 지역적 맥락과 경험에 따라 이 작품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색상과 톤에 개입하고 흐름을 끊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연결고리를 제안하고 새로운 구성을 만들면서 그 우주를 확대하고, 20세기에 걸쳐 변화해 온 유토피아의 현장을 발굴해 볼 수도 있다.

발리 마흐루지/마지막 10년의 고고학, 문화지도 — 예측 불가의 유토피아, 2017 — 2020. 작가 제공. 20세기에 시공간을 넘나들며 일어났던 유토피아적인 사고와 행동의 다양한 교류를 강조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계속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과정이다. 새로운 지역에 머물며 작업을 함에 따라 확장하고 변화한다. 광주에서의 전시가 끝날 때까지, 분단 전후

한국의 사고와 실천들과도 연결되어 발전될 예정이다. 20세기를 특징지었던 보편화된 초월적, 해방적 자극에 기여했거나 영향을 받았던 사고와 실천들을 중심으로 말이다. Vali Mahlouji/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A Cultural Atlas—The Shifting Sands of Utopias, 2017–2020. Courtesy of the artist. The artwork highlights various exchanges of utopian thought and action across space and time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It remains an unfinished and ongoing process that expands and morphs as it occupies new territories. By the end of its time in Gwangiu,

it intends to have developed connections with pre- and post-partition Korean ideas and practices that borrowed and contributed to the universal pool of transcendental and emancipatory impulses that marked the twentie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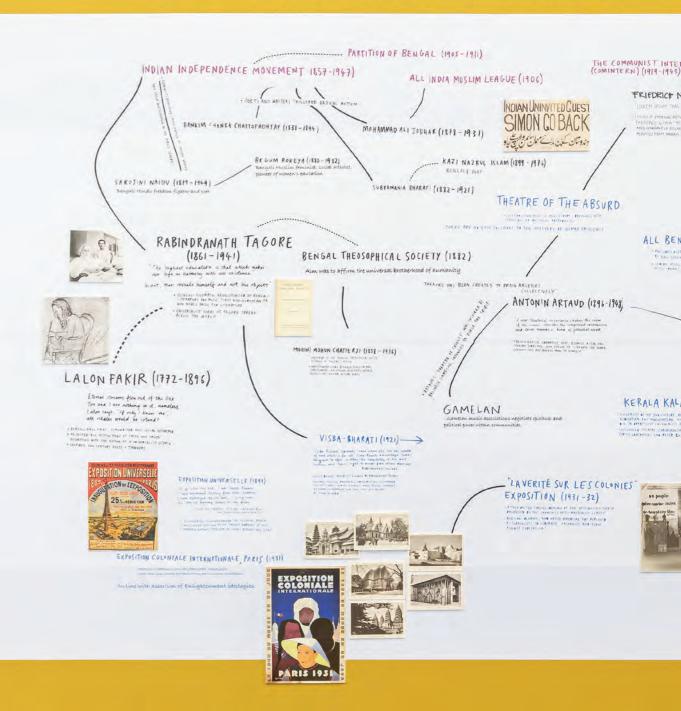
The cultural atlas traces a complex space of international modernity through which knowledge was exchanged across alternative (often non-European) plateaus. This process of global "reorientation" takes us through a reconstruction of the gaze—subverting the single "reading" of West to East into a more cyclical model, engaging in cultur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negotiations form East to East, East to West, South to East, South to South—constructing a panoramic exchange of global philosophical and artistic discourse.

The interactive and ongoing cultural atlas conjures a fragmented history of the long twentieth century through the ambitions and contradictions of countless utopian universalist episodes and ideals: transcendental internationalisms; radical liberations; emancipating solida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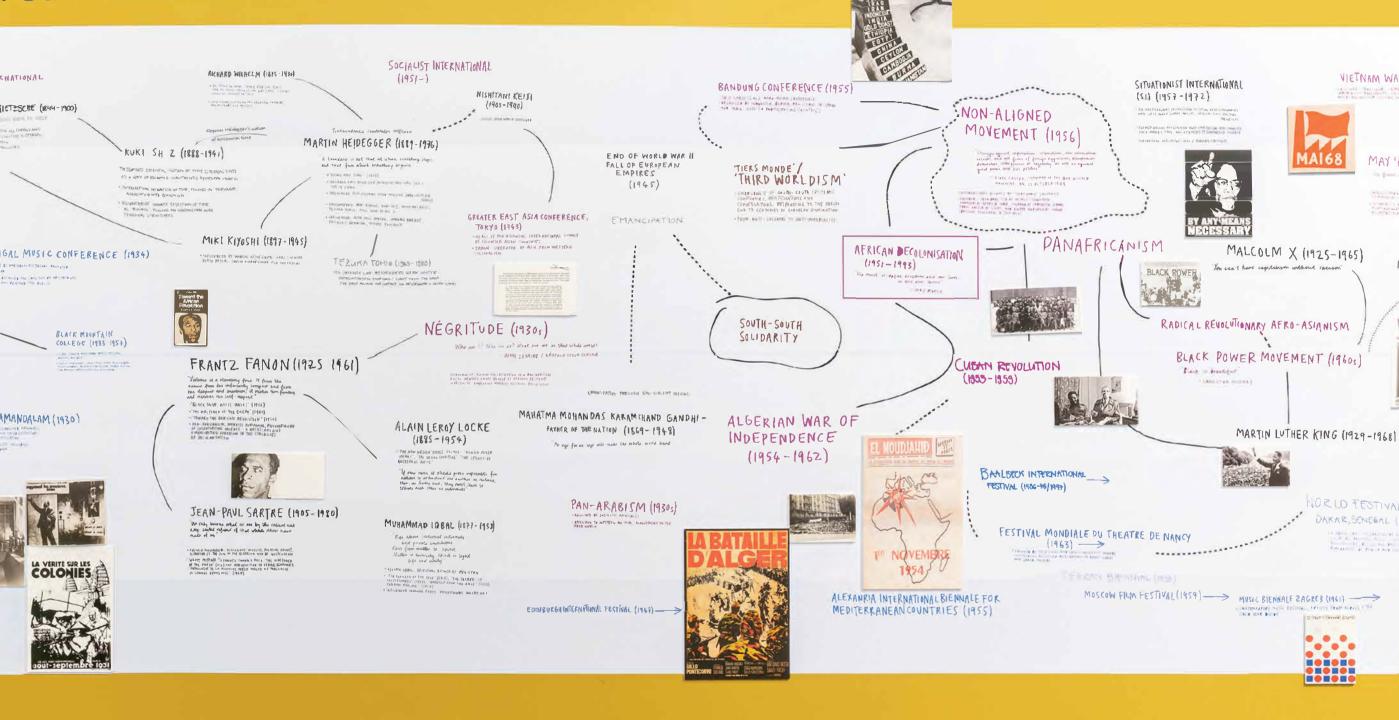
By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the demise of the old European empires revealed a new horizon of opportunities and encounters for people and cultures across the world. The atlas serves as an evocation of the constantly evolving dreams and possibilities that emerged and dissolved during the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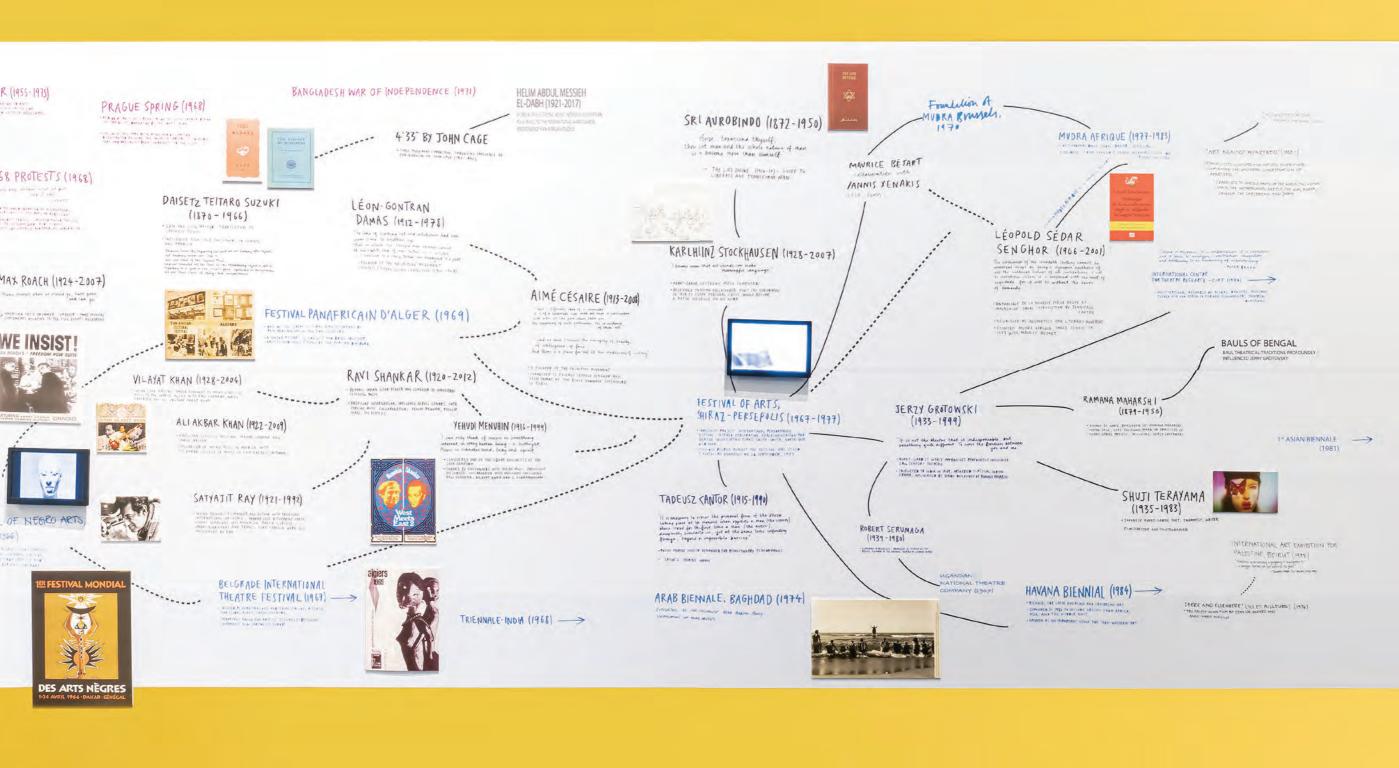
Intending to be a living object the cultural atlas mutates with each re-instalment. It remains a deliberately unfixed, unfinished, and unstable process—like the ideas and connections it conjures—intending to be animated by the spaces that it arrives in. To that effect, the cultural atlas is a live object. Audiences are encouraged to interrupt, intercept, and shape the colour and tone of its evolution, and to expand its cosmos by proposing new links and initiating new constellations, unearthing the shifting sites of utopias across the twentieth century, based on their local context and experience.

The Shifting Sands of Utopias - A



Cultural Atlas





CONTRIBUTORS

마흐루지의 리크리에이팅 더

기회자

보야나 피슈쿠르

보야나 피슈쿠르는 슬로베니아 (당시 유고슬라비아) 류블랴나 태생이며 류블랴나 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체코 프라하 카렐 대학교 미술사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류블랴나 현대 미술관(MG)+ 메텔코바 현대 미술관(MSUM) 수석 큐레이터로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 영역과 연계된, 또는 예술을 통해 표출되는 정치적 이슈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더 큰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맥락에서 바라본 유고슬라비아의 포스트 아방가르드, 급진주의 교육, 자생적 문화 정치 및 비동맹 운동 등의 주제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기고와 강연을 했다.

발리 마흐루지/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발리 마흐루지는 마지막 10년의 고고학(AOTFD)을 설립한 큐레이터로, 대영 박물관 자문 위원이자 카베 골레스탄 에스테이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아트 두바이 모던 큐레이터 위원회 회원이며 바만 모하세스 에스테이트 이사회 회원이기도 하다.

큐레이터 플랫폼인 마지막 10년의 고고학은 2010년 설립 이후, 삭제되고 잊힌 역사를 발굴하는 작업을 해 왔다. 검열, 금지당하고 훼손되었거나 고의로 파손되었던 문화 유물을 복구해 냈으며, 그들의 작품은 테이트 모던, 파리 시립 현대 미술관, 대영 박물관, 스미스소니언 협회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과 같은 국제적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Curators

Boiana Piškur Bojana Piškur was born in

Ljubljana, Slovenia (then Yugoslavia). She graduated in art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Ljubljana and received her Ph.D. at the Institute for Art History at the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the Czech Republic. She works as a senior curator in the Museum of Modern Art in Ljubljana (+ Museum of Contemporary Art Metelkova). Her focus of professional interest is on political issues as they relate to or are manifested in the field of art,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region of (former) Yugoslavia. She has written for numerous publications and lectur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on the topics such as post avant-gardes in Yugoslavia, radical education, cultural politics in self-management and the Non-Aligned Movement, always in relation to the wider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Vali Mahlouji/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Vali Mahlouji is a curator, founder of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AOTFD), advisor to the British Museum, and director of Kaveh Golestan Estate. Mahlouii serves as a member of the Art Dubai Modern Curatorial Committee and is a board member of Bahman Mohassess Estate.

Since 2010, the curatorial platform AOTFD has excavated erased and obscured histories. It recovers cultural artefacts that have been subjected to censorship, banned, endangered or deliberately destroyed, and has placed artworks in international collections, including: Tate Modern,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The British Museum, Smithsonian Institute

시타델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테이트 모던 사상 처음으로 이란 작가(사진작가 카베 골레스탄) 전용 전시실을 마련했다.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열었던 그의 유토피아 스테이지(2015) 전시는 글로벌 파인 아츠 어워즈 최우수 전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마흐루지는 최근에 광주 국립 컨템퍼러리, 레바논 베이루트 수르소크 미술관, 방글라데시 다카 아트 서밋 2018, 런던

아시아문화전당, 베를린 SAVVY 화이트채플 갤러리, 파리 시립 현대 미술관, 로마 국립 21세기 미술관(MAXXI), 암스테르담 사진 미술관(FOAM), 노르웨이 베르겐 트리엔날레, 포토 런던, 암스테르담 프린스 클라우스 재단, 싱가포르 국제 예술 페스티벌, 아트 두바이 모던, 그리고 리버풀 오픈 아이 갤러리에서 전시를 기획했다.

마흐루지의 리서치 작품은 런던 테이트 모던, 모스크바 개라지 현대 미술관, 브리스틀 아놀피니 미술관, 벡스힐온시 데 라 웨어 파빌리온, 그리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에서 전시되었다.

2021년에는 마흐루지의 저서 유토피아 스테이지가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독립기획자로서 다양한 예술 형식과 관점을 소개, 제작해 왔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현대 미술관 '다원예술' 프로젝트 감독으로 활동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초대 예술감독으로 개관 축제 및 시즌을 총괄했다. 2007년 다원 예술 축제 '페스티벌 봄'을 창설해 2013년까지 초대 감독을 맡았고, 백남준아트센터 개막 축제 스테이션 2(2008), 국제현대

and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Mahlouii's Recreating the Citadel project produced the first room dedicated to an Iranian artist at Tate Modern (Kaveh Golestan) in 2017-2018. His A Utopian Stage exhibition at Whitechapel Gallery (2015) was nominated for Best Exhibition by the Global Fine Arts Awards.

Mahlouji's has recently curated exhibitions at Asia Culture Center (Gwangiu) SAVVY Contemporary (Berlin), Sursock Museum (Beirut). Dhaka Art Summit 2018, Whitechapel Gallery (London),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MAXXI Museo nazionale delle arti del XXI secolo (Rome), FOAM Fotografiemuseum Amsterdam, Bergen Triennial, Photo London, Prince Claus Fund (Amsterdam), Singapore International Festival of Arts, Art Dubai Modern and Open Eve Gallery (Liverpool).

His research-artworks have been exhibited by Tate Modern (London), Garage Museum of Contemporary Art (Moscow), Arnolfini (Bristol), de la Warr Pavilion (Bexhill-on-Sea) and Asia Culture Center (Gwangju).

Mahlouji's upcoming title A Utopian Stage will be published by Whitechapel Gallery in 2021.

Seonghee Kim

As an independent curator. Seonghee Kim has introduced and produced various artistic forms and perspectives. From 2017 to 2018, Kim has served as the project director of the Performing Arts Program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From 2013 to 2016, Kim served as the inaugural artistic director of Theater at Asia Culture Center and oversaw the opening festival and programs throughout the season. In 2007, Kim established 무용제(MODAFE, 2002-2005)의 디렉터로 활동했다. 다원 예술 잡지 옵.신을 공동 출간하고 있으며, 계원예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슬기와 민(최슬기, 최성민)은

슬기와 민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홍콩 M+, 건축 사무소 매스스터디스 등과 협력했다. 최성민은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3 총감독으로 활동했고, 2016년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그래픽 디자인, 2005-2015, 서울을 김형진과 공동 기획했다. 최슬기는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에서 열린 W쇼-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를 김영나, 이재원과 공동 기획했다. 최슬기는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최성민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가르친다.

고토 데쓰야

고토 데쓰야는 오사카에서 디자이너, 큐레이터이자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킨키 대학 부교수이자 오사카 예술 대학 객원 교수로, 일본 그래픽 디자인 협회 비평지 그래픽 디자인 리뷰 이사회 회원이기도 하다. 피크라 그래픽 디자인 비엔날레(아랍에미리트 샤르자, 2018)와 타이포잔치(서울, 2013 및 2015)의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또한 픽션으로서 아시아 (오사카 크레이티브 센터, 2019), 아이디어에 연재한 동명 기사에 기반한 전시 옐로 페이지스(교토 DDD 갤러리, 2018) 등을 기획했다. 독립 크리에이터들 사이에 협업의 장을 마련하고자 아웃 오브 오피스라는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다.

김성원

김성원은 불문학과 미술사학, 미술관학을 전공하고, 서울을 기반으로 큐레이터와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아트선재센터의 학예실장, 아뜰리에 에르메스의 아티스틱 디렉터,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2006의 공동 예술감독, 안양공공

the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rts event Festival Bo:m and served as the inaugural director until 2013. She also served as the artistic director of Station 2 at Nam June Paik Art Center's Inaugural Festival in 2008 and as the director of MODAF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from 2002 to 2005.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at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and a co-editor of the interdisciplinary arts magazine Ob.Scene.

Sulki and Min

Sulki and Min (Choi Sulki and Choi Sung Min) are graphic designers based in Seoul. They have worked with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Museum of Art, Asia Culture Center,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M+ in Hong Kong and the architectural firm Mass Studies, Choi Sung Min directed Typojanchi 2013, the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in Seoul, and co-curated with Kim Hyungjin Graphic Design 2002-2015, Seoul held at the Ilmin Museum of Art. Choi Sulki co-curated with Na Kim and Chae Lee The W Show: A List of Graphic Designers held in 2017 at the SeMA Storage of the Seoul Museum of Art. Choi Sulki teaches at Kavwon School of Art and Design, and Choi Sung Min teaches at the University of Seoul.

Tetsuya Goto

designer, curator, and editor. Goto is also an associate professor at Kindai University, and a visiting professor at Osaka University of Arts as well as a board member of JAGDA's Graphic Design Review, He was a curator of Fikra Graphic Design Biennale (Sharjah, 2018) and Typojanchi (Seoul, 2013 and 2015). He has also curated Asia as Fiction (Creative Center Osaka, 2019) and Yellow Pages (Kyoto DDD Gallery, 2018), which was based on a long-term research article series for Idea magazine under the same title In addition, he has built a creative platform Out Of Office to foster collaborations between independent creatives.

Tetsuva Goto is an Osaka-based

예술프로젝트 2007의 예술감독, 문화역서울 284의 예술감독 등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부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전시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1999년부터 동덕여자 대학교 큐레이터 전공 겸임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립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서동진

교수이다. 자본주의 경제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관심이 있으며, 근년 시각 예술과 퍼포먼스에 관련된 글을 두루 발표하였다. 최근에 신유물론과 정동 이론 등의 새로운 지적 경향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해 왔다. 저서로는 동시대 이후(현실문화A, 2018), 변증법의 낮잠(꾸리에, 2014),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디자인 멜랑콜리아 (현실문화연구, 2009) 등이 있다. 공저로는 공간을 스코어링하다 (현실문화A, 2019),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일민미술관, 2018),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임흥순 (현실문화A, 2018), Access to Contemporary Korean Art 1980-2010(동시대 한국미술 1980-2010)(포럼에이, 2018) 등 다수가 있다.

Sungwon Kim Sungwon Kim is a curator and

art critic based in Seoul. After studying French literature, art history, and museology, Kim has been active since 2000, holding positions at Art Sonje Center (chief curator), Atelier Hermès (artistic director), Springwave Festival 2006 (co-artistic director), Anyang Public Art Project 2007 (artistic director), and Culture Station Seoul 284 (artistic director), as well as serving as adjunct professor of Curatorial Studies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Currently, Kim is the director of the curatorial division at ACC Creation, Asia Culture Center, and professor at the College of Arts and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ongjin Seo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media Art at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Uiwang, South Korea. Seo has been interested in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italist economy and culture. In recent years he has written widely on the topics of visual art and performance. He has held seminars of Marxist criticism of new intellectual trends such as new materialism and affect theory. His writings include Beyond the Contemporary (Hyunsillbook, 2018), Dialectical Nap (Courrier, 2014), Will of Freedom, Will of Self Development (Dolbegae, 2009), and Design Melancholia (Hyunsillbook, 2009), His many joint publications include Scoring the Space (Hyunsillbook, 2019), Collective Rhythm, Collective Body (Ilmin Museum of Art, 2018), Red, Blue, and Yellow, MMCA Artist Studies 1 (Hyunsilbook, 2018), and Access to Contemporary Korean Art 1980-2010 (Forum A, 2018)

278

서혀석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서현석은 영상과 퍼포먼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공간과 감각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고 있다. 헤테로토피아(2010-2011), 영혼매춘(2011), 무대공포(2013), 매정하게도 가을바람(2013), From the Sea(2014), 천사-유보된 제목(2017), 미완의 페허 (김홍석과 협업, 2019) 등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 및 전시를 통해 '작품' 및 체험의 경계를 실험해 왔다. 아시아에서의 국가 형성과 모더니즘 건축의 관계를 탐색하는 영상 작품들을 만들고 있으며, 그 초기 작업들을 광주 비엔날레 (2011, 2018),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2014, 2018), DMZ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2019) 등에서 선보였다. 미래 예술(2016)과 Horror to the Extreme: Changing Boundaries in Asian Cinema (2009)를 공동으로 썼고, 비정기 간행물 옵.신을 내고 있다. 연세 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다.

Naeem Mohaiemen Born in UK; based in New York, USA. Naeem Mohaiemen combines essays, films, drawings, and installations to research failed insurgencies and incomplete decolonization-framed by Third World Internationalism and World Socialism. He is the author of Midnight's Third Child (Nokta. forthcoming) and Prisoners of Shothik Itihash (Kunsthalle Basel, 2014); co-editor (w/ Eszter Szakacs) of Solidarity Must be

Defended (Tranzit, forthcoming) editor of Between Ashes and Hope: Chittagong Hill Tracts in the Blind Spot of Bangladesh Nationalism (Drishtipat, 2010); and co-editor (w/Lorenzo Fusi) of System Error: War is a Force that Gives us Meaning (Sylvana, 2007). His work has been exhibited at Mahmoud Darwish Museum (Ramallah), Bengal Foundation (Dhaka), SALT (Istanbul), Vasas Federation of Metalworkers' Union (Budapest) among others.

Hvun-Suk Seo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Hyun-Suk Seo's moving images and performance works as well as writings investigate how senses and space interact with and reconfigure each other. Heterotopia (2010-2011). The Devine Prostitution of the Soul (2011), Stage Freight (2013), Heartlessly Autumn Wind (2013), From the Sea (2014), The Angel - Tenuously Named (2017), and The Incomplete Ruins (with Gimhongsok, 2019), among other site-specific performance pieces and exhibitions, question and rework the boundaries of "art work" and viewers' experience. The first phases of his video projects on modernist architecture in the Asian postcolonial contexts have been shown at Gwangju Biennale (2011, 2018),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2014, 2018), and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2019). He is the co-author of the books Art of the Future (2016) and Horror to the Extreme: Changing Boundaries in Asian Cinema (2009) and the co-editor of Ob. Scene, the magazine for "things out of the scene." He teaches cinema at Yonsei

University.

발리 마흐루지/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 276쪽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 소개 칠레 산티아고에 위치한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은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기증한 작품으로만 구성된 컬렉션을 보유한 현대 미술관이다. 1971년 설립 이래 예술적 실험과 정치적 사고의 유토피아적인 모델을 추구해 왔다.

브라질 출신의 저명한 예술 비평가이자 이론가인 마리오 페드로자가 초대 미술관장을 맡았으며, 설립 후 첫 2년 동안 미술관의 취지에 공감하는 예술가들로부터 700여 점의 작품을 기증받았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는 세계 각국의 예술가. 지식인, 정치인, 망명 칠레인, 라틴 아메리카 동료들의 지원에 힘입어 해외를 떠돌며 망명 미술관으로 운영되었다. 피노체트 독재 정권에 대한 국제적인 저항을 촉구했으며 1,000여 점의 예술 작품을 새롭게 기증받기도 했다.

미술관이 칠레에서 다시 개관한 이후 컬렉션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현재에는 가치가 높은 2,700여 점의 예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의 컬렉션은 개별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집단적 힘을 통해, 자유와 연대, 평등을 위한 투쟁의 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곳은 애초부터 예술계 시스템과 예술 관련 기관들이 가진 헤게모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설립된 새로운 유형의 미술관으로 인식되었다. 미술관 직원과 조력자들로 구성된 이곳의 네트워크는 현대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러한 문화적 모험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재현하고자 한다.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 기획/제작자

다니엘라 베르헤르 프라도(칠레 산티아고 출신)는 큐레이터 겸 미술사학자로, 런던 왕립 예술 대학 (RCA)에서 현대 미술 큐레이터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부터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 전시

Vali Mahlouii 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rightarrow p. 276

MSSA: Introduction Museo de la Solidaridad Salvador Allende, in Santiago, Chile, is a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useum with an art collection formed exclusively by donations from artists around the world. Since its creation in 1971, the museum was designed as a utopic model for artistic experimentation and political thinking.

With Mário Pedrosa, renowned Brazilian art critic and theorist, as its first director, the museum received in its first two years approx. 700 artworks from artists who supported the museum's endeavor. Between 1975 and 1990, the museum operated in exile in many countries thanks to the support of artists, intellectuals, politicians, exiled Chileans and Latin-American friends. making an international call for resistance during Pinochet's dictatorship and receiving more than 1,000 donated artworks.

Once the museum was established again in Chile, its collection has continued to increase over the years and today holds over 2,700 artworks of highest value, positioning this museum as one of the most relevant in Latin America. The collection symbolizes, both through its individual diversity as well as its collective force, the commitment to fight for freedom, solidarity, and equity. The network formed by the museum's workers and collaborators permanently aims to reconstruct and reenact this significant cultural venture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originally conceived as a new museum model that questioned—and continues to question—the hegemony of the art system and its institutions.

MSSA: Curators/Producers Daniela Berger Prado (b. Santiago, Chile) is a curator and art historian, and holds a MA in Curating Contemporary Art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London. She is the head of the Exhibitions Programme at Museo de la Solidaridad Salvador Allende since 2016 Some of her last curatorial and editorial projects include: Anchor 637 with Hugo Rivera-Scott

프로그램 수석 큐레이터를 맡고 있다. 최근 기획한 프로젝트로는 닻 637, 우고 리베라스코트 외 다수 (MSSA, 2019), 부드러운 벽. 국경과 국경 사이(MSSA, 2017), 팝의 등장. 불경스러움과 칠레의 거리(MSSA, 2016), 그리고 우주를 듣는 자, 멜라니아 린치 (파남 갤러리, 산티아고, 2017) 등이 있다. 이외에도 삼차원(산티아고 칠레 국립 미술관, 루스트로 프로젝트 영국-칠레, 2017-2019) 프로젝트에서는 전시와 더불어 칠레 작가 프란시스카 프리에토에 관한 컬렉터 서적 연구 및 편집을 맡았다. 국립 불확실한 미래 연구소 (세르반테스 문화원, 러시아 모스크바, 2018/에스포라 갤러리, 산티아고, 2019) 프로젝트에서는 칠레 여성 예술가에 관한 전시 및 관련 출판을 기획했다

페데리코 브레가(아르헨티나 산라파엘 출신)는 아키비스트이자 미술사학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에서 근무하며, 미술관 역사 아카이브 정리 및 시스템화 작업을 초기부터 진행했다. 칠레-쿠바 (쿠바 카사 데 라스 아메리카스와 공동 작업, 2018), 전 세계의 예술가들에게...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 1971-1977(멕시코 대학 현대 미술관(MUAC)과 공동 작업, 2016), 데뷔, 작품 43점이 컬렉션으로 돌아오다(2018), 해빙 후. 스웨덴과 핀란드의 예술가 집단(2017), 그리고 저항의 비문 (2016) 등의 연구 개발 및 전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네메시오 안투네스 아카이브와 ARCIS 아트 스쿨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수석 아키비스트다.

마리아 빅토리아 마르티네스 (칠레 산티아고 출신)는 시각 예술가이자 큐레이터, 독립 연구자다. 2017년부터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의 전시 프로듀서로서, 현대 미술 전시와 소장품 전시 제작을 맡고 있다. 죽은 고기는 절대 따뜻해지지 않는다, 테레사 마르고예스(2019), 드론과 드럼, 이그나시오 아코스타(2019) 아름다운 화석을 위한 노래, 로메티 코스탈레스(2019), 불안한 과거 (크리스틴 쿠리, 리샤 살티 기획, 2018) 등의 전시를 담당했다.

and Others (MSSA, 2019); Soft Walls. Being Between Borders (MSSA, 2017): The Emergence of Pop. Irreverence and Street in Chile (MSSA, 2016); The Hearing Mundus, Melania Lynch (Galería Panam, Santiago, 2017); research and edition for the collector's book about artist Francisca Prieto alongside with the exhibtion The Three Dimensions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Santiago; a Lustro project UK-Chile, 2017-2019); and National Institute of the Uncertain Future, an exhibition and publication about Chilean female artists (Instituto Cervantes, Moscow, Russia, 2018: and Galería Espora. Santiago, 2019).

Federico Brega (b. San Rafael, Argentina) is an archivist and art historian. Between 2014 and 2018 he worked at Museo de la Solidaridad Salvador Allende, where he was involved from the beginning in the organ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he museum's historical archives. He als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research and exhibition projects such as: Chile-Cuba in collaboration with Casa de las Américas, Cuba (2018): To the Artists of the World... Museo de la Solidaridad Salvador Allende, 1971-1977 in collaboration with Museo Universitario Arte Contemporáneo MUAC, México (2016); Debut, 43 Artworks Reunite with Their Collection (2018); After the Thaw. Brigades in Sweden and Finland (2017) and Inscriptions of Resistance (2016). He is currently the lead archivist at the Nemesio Antúnez Archives and the ARCIS Art School Archive Project. María Victoria Martínez

(b. Santiago, Chile) is a visual artist, curator, and independent researcher. Since 2017 she is the exhibition's producer at Museo de la Solidaridad Salvador Allende, where she has been in charge of the general production of the museum's collection exhibits as well as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Dead Flesh Never Warms Up, Teresa Margolles (2019); Drones & Drums, Ignacio Acosta (2019): Song for a Chanting Fossil, Rometti Costales (2019), Past Disguiet, curated by Kristine Khouri and Rasha Salti (2018); and others. Currently she

현재 고서 및 문자 문화 연구 그룹 CInELA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산티아고 소재 레콜레타 도미니카 유산 도서관 전임 연구원으로, 전시 및 출간 프로젝트 이 책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2018)와 쓰고 상상한 것으로부터(2015)를 기획한 바 있다.

호루이 안 싱가포르 출생, 활동, 호 루이

안은 현대 미술, 영화, 퍼포먼스와 이론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작업하는 예술가이자 작가이다 주로 강연과 에세이, 영화 등의 작업을 한다. 이미지와 권력 간의 변화하는 관계를 탐구하는 한편, 글로벌리즘과 지배의 맥락 속에서 이미지가 생산, 순환, 소멸하는 방식을 집중 조명한다. 광주 비엔날레(2018), 자카르타 비엔날레(2017), 아랍 에미리트 샤르자 비엔날레(2017), 인도 코치무지리스 비엔날레(2014), 베를린 세계 문화의 집(2017), 마닐라 호르헤 B. 바르가스 박물관 & 필리피니아나 연구 센터(2017), 싱가포르 NTU 현대 미술 센터 (2017) 그리고 홍콩 패러 사이트 (2015) 등에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킥 더 머신 다큐멘터리 컬렉티브 태국에서 결성, 치앙마이와 방콕에서 활동. 킥 더 머신 다큐멘터리 컬렉티브는 네 명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아크릿차렘 칼라야나미티르, 찻차이 수반, 파톰퐁 마나킷솜분)의 영화감독과 예술가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영상, 사운드, 설치 및 큐레이션 등을 아우르며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카 쿠르니아완 인도네시아 출생, 자카르타에서 활동. 에카 쿠르니아완은 인도네시아 타시크말라야에서 태어났다. 욕야카르타 소재 가자 마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장편 및 단편 소설, 에세이, 영화 대본 및 그래픽 노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으며, 그의 작품은 3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의 대하소설

아름다움 그것은 상처는 세계적인

is also the president of CInELA (Círculo de Investigadores y Estudiosos del Libro Antiquo /Circle of Researchers and Scholars of the Old Book), a study and research group about antique books and written culture, and an associate researcher at the Recoleta Dominica Patrimonial Library in Santiago where she has curated the exhibition and editorial projects See What's in This Book (2018) and About the

Written and the Imagined (2015).

Ho Rui An Born and based in Singapore. Ho Rui An is an artist and writer working in the intersections of contemporary art, cinema, performance, and theory. Working primarily across the mediums of lecture, essay, and film, he probes into the shifting relations between image and power, focusing on the ways by which images are produced, circulate, and disappear within contexts of globalism and governance. He has presented projects at the Gwangiu Biennale (2018), Jakarta Biennale (2017), Sharjah Biennial (2017), Kochi-Muziris Biennale (2014), Haus de Kulturen der Welt, Berlin (2017), Jorge B. Vargas Museum and Filipiniana Research Center, Manila (2017), NTU Centre for Contemporary Art Singapore (2017) and Para Site, Hong Kong

Kick the Machine Documentary Collective Founded in Thailand; based in Chiang Mai and Bangkok. Thailand, Kick the Machine Documentary Collective is a group of four Thai filmmakers and artists, consisting of Apichatpong Weerasethakul, Akritchalerm Kalavanamitr. Chatchai Suban and Pathompong Manakitsomboon. Their body of work spans the moving image, audio, installation, and curation.

Eka Kurniawan Born in Indonesia; based in Jakarta. Eka Kurniawan was born in Tasikmalaya, Indonesia He studied philosophy at Gadiah Mada University, Yogyakarta, and is the author of novels, short stories, essays, movie scripts, and graphic novels. He was longlisted for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2016, and his work has

호평을 받았다. 뉴욕 리뷰 오브 북스는 쿠르니아완을 "귄터 그라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살만 루슈디의 문학적 계보를 잇는 작가"라고 소개했다. 르 몽드는 노벨상 심사 위원단이 "인도네시아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이 상을 쿠르니아완에게 수여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백현진은 음악가, 미술가, 배우다. 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국립현대 미술관, 삼성미술관 플라토, 아트선재센터, 성곡미술관, 상해 민생 현대 미술관, 쿤스트할레 빈 등 주요 미술 기관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2017년에는 국립현대 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7' 후보 작가로 선정되었다. 또한 그는 한국 인디 밴드 1세대인 '어어부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팀 '방백'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영화 북촌방향, 경주, 그것만이 내 세상과 드라마 붉은 달 푸른 해 속 개성 강한 배우로서 전방위적 예술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응우옌 장

베트남 출생, 호찌민에서 활동. 응우옌 장은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비하프 스튜디오의 창립자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 개발과 아트 디렉션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 공동체 사업과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미술 디자인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고, 베트남 RMIT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영국 런던 디자인 비엔날레(2018), 일본 도어 투 아시아(2016), 서울 타이포잔치(2015) 등 여러 국제 전시회에 참여한 바 있다.

나가시마 리카코

일본 출생, 도쿄에서 활동, 나가시마 리카코는 도쿄의 무사시노 미술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독자적으로 스튜디오 빌리지®을 설립했다. 그래픽 디자인을 중심으로 아이덴티티

been translated into thirty-five languages. His epic novel of magical realism, Beauty is a Wound, has been widely praised internationally.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considers Kurniawan "a literary child of Günter Grass, Gabriel García Márquez, and Salman Rushdie," and Le Monde has suggested that in the future, Nobel jurors may award him the prize "that Indonesia has never received."

Bek Hvuniin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Bek Hyunjin is a musician, artist, and actor. In addition to holding numerous solo exhibitions in Korea, the UK, Germany, and Italy, he has participated in collaborative exhibitions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Samsung Museum of Art PLATEAU, Art Sonie Center, Sungkok Art Museum. Shanghai Minsheng Art Museum, Kunsthalle Wien and other major institutions. He was a finalist for the Korea Artist Prize 2017 from the MMCA. Bek has steadily engaged in multi-faceted artistic endeavors, as a singer-songwriter and the lead vocalist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indie bands Uhuhboo Project and Bahngbek: as an actor who has delivered strong performances in the films The Day He Arrives, Gyeongju, Keys to the Heart and

Giang Nguyen

Born in Vietnam: based in Ho Chi Minh City, Giang Nguyen is the founder and creative director of Behalf Studio, Besides participating in numer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t direction and brand identity projects, he is engaged in community and art programs. He graduated from Savannah College of Art & Design in the United States with an MFA in Graphic Design and holds a Graduate Certificate in Teaching & Learning from RMIT University, Vietnam. His work has been featured in various international exhibitions including the London Design Biennale (2018), Door-to-Asia, Japan (2016), and Typojanchi, Seoul (2015).

the TV show Children of Nobody.

디자인, 사인 계획, 도서 디자인, 공간 디자인을 아우르며 활동한다. 그의 작업에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디자인이 초래한 환경 파괴를 의식한 작업으로, 예컨대 인쇄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지와 잉크 얼룩을 이용한 패턴, 제품 제조 과정에서 잘려 나온 직물 조각을 이용한 공간 디자인,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 직물에 인쇄하는 섬유 디자인 등이 있다.

유관설계부문

중국에서 설립, 상하이에서 활동. 2017년 설립된 유관설계부문은 디자인 관련 실험과 연구에 대안적으로 접근하는 독립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다. 특히 일상적 실천과 담론에서 정체성 정치와 탈인터넷, 탈식민지 맥락에 초점을 두고 활동한다. 설립자 멍신은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미술 학사 학위를,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그래픽 디자인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젊은 창작자와 함께 그들을 위한 인쇄물과 디지털 파일을 출간하는 셀프 출판 프로젝트 '페이지 뷰로'를 설립하기도 했다.

다카다 유이

일본 출생, 도쿄에서 활동. 다카다 유이는 도쿄 구와사와 디자인 연구소(桑沢デザイン研究所)를 졸업했다. 2006년 디자인 사무소 '올라이트 그래픽스'를 설립했고, 2007년에는 활판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올라이트 프린팅'을 세우는 한편, 종이 제품 전문점 파피에 라보(パピエラボ)에 아트 디렉터로 합류했다. 도쿄, 타이완,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도쿄 조형 대학 조교수로 재직

자누아르 리안토

인도네시아 출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 자누아르 리안토는 디자이너이자 연구자, 편집자, 큐레이터로, 디자인과 교육, 대중문화의 교차점에서 활동한다. 런던에서 공부했고 이후 트레비소와 도쿄에서 공상적 디자인과 디자인 비평에 중심을 두고 그의 연구와 디자인 방법론을

Rikako Nagashima

Born in Japan; based in Tokyo Rikako Nagashima graduated from Musashino Art University and founded her studio, village®, in 2014. Her graphic deisgn practice includes identity design, sign planning, book design and spatial design.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and an awareness of the damage caused by design are foremost in her practice. This is exemplified in her pattern design incorporates ink stains and scrap paper generated in the printing process, her spatial design uses fabric offcuts from manufacturing and her textile design incorporates fabric made from recycled plastic bottles.

Related Department

Founded in China: based in Shanghai. Related Department, founded in 2017, is an independent graphic design studio dedicated to alternative approaches in design-related experiments and research. They work with a specific focus on post-Internet and postcolonial contexts and the identity politics involved in everyday practice and discourse. Founder Scarlett Xin Meno holds a BFA in Studio Art from Cornell University and an MFA in Graphic Design from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In 2018, she also founded Page Bureau, a self-publishing project which releases printed matter and digital files designed with and for emerging creative talents.

Yui Takada

Born in Japan: based in Tokyo. Yui Takada graduated from Kuwasawa Design School, Tokyo. He established the design office Allright Graphics in 2006 and founded the letterpress print shop Allright Printing in 2007. In the same year, he also joined the specialist shop for paper products, Papier Labo., as an art director. He had solo exhibitions in Tokyo, Taiwan, Shanghai, and Beijing. He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okyo Zokei University.

Januar Rianto

Born in Indonesia; based in Jakarta, Januar Rianto works at the intersection of design, education, and popular culture as a designer, researcher, editor, and curator. After studying in London, 넓혔다. 그의 작업은 대체로 디자인의 주변부를 탐색한다.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틀로서 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전문 분야이자 연구 주제인 디자인을 향한 비판적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이치 아더 컴퍼니의 설립자로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퍼더 리딩의 편집 주간 겸 발행인이자 자카르타 아트 북 페어 공동 주최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배민기는 2008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2011년 석사 학위를, 2015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강의와 상업 영역 기업들과의 현업을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해 활동한다. 개인전 Put Up & Remove(플랫폼 플레이스 홍대, 2016)를 열었고, 타이포잔치(문화역서울 284, 2017),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7)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시드니 시에/전윈존

타이완에서 결성, 타이베이에서 활동. "해가 지지 않는 네온 열대 도시의 집단 무의식처럼 형광빛을 띠는" 시드니 시에의 작업은 그래픽 디자인과 사진, 애니메이션, 영상을 아우른다. 시드니 시에의 영상 작품은 호주 멜버른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포르투갈 몬스트라 페스티벌, 루마니아 키노페스트, 영국 애니멕스 페스티벌, 이탈리아 루카니아 페스티벌, 불가리아 골든 쿠커 소피아 등에서 수상 후보로 오른 바 있다. 전원존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멀티미디어 예술가 겸 음악가다. 그래픽 디자인에 3D와 무빙 이미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타이완의 여러 뮤직 페스티벌과 콘서트의 시각 효과와 무대를 디자인했다. 시드니 시에와 전위존은 팀을 이뤄 젠더 관련 쟁점을 함께 조명하면서, 그들이 지닌 창의성이 불평등한 사회를 변화시키길 희망한다.

Rianto focused on speculative design and design critique in Treviso and Tokyo in order to broaden his research and design methodology. To develop a critical attitude towards the discipline and subjects of design, his practice mainly navigates the peripheries of the discipline and renders it as a framework and way of seeing. He is the founder and creative director of Each Other Company, the editor-inchief and publisher of Further Reading and the co-organizer of the Jakarta Art Book Fair.

Bae Minkee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Bae Minkee graduated in 2008 from the Department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continued his studies there to earn an MFA in 2011 and a Ph.D. in 2015. He divides his time between teaching and consulting with corporate clients. He held a solo exhibition Put Up & Remove (Platform Place Hongdae, Seoul, 2016) and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ypojanchi (Culture Station Seoul 284, 2017) and th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Dongdaemun Design Plaza, 2017).

Sydney Sie/Zen Yun Zon Founded in Taiwan: based in Taipei. Sydney Sie's practice, "Iridescent Like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of an Eternally Sun-lit, Tropical City of Neon," encompasses the mediums of graphic design, photography, animation, and video. Sie's video work has been nominated for awards at the Melbourne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Australia: Monstra Festival, Portugal; Kinofest, Romania: Animex International Festival, UK; Lucania Film Festival, Italy; and Golden Kuker Sofia, Bulgaria. Zen Yun Zon is a graphic designer, multimedia artist and musician. Combining 3D and moving images with graphic design, Zen has created numerous visuals and stage installations for music festivals and concerts in Taiwan. Together as a team, they work to tackle gender-related issues, utilizing their creativity for projects that

하시즈메 소

일본 출생, 도쿄에서 활동. 하시즈메 소는 도쿄 무사시노 미술 대학에서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런던 왕립 예술 대학 (RCA)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독립 아트 디렉터 겸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고. 다양한 전시와 워크숍 기획에 참여했다. 조시비 미술 대학과 무사시노 미술 대학에 출강했다.

기디언-제이미

싱가포르에서 결성, 활동. 기디언· 제이미는 기디언 콩과 제이미 여가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다. 이들의 활동에서는 대안적 생산 소통, 배급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부터 상업적 그래픽 디자인 작업부터 소규모 출판, 오브제와 모형 제작, 연구, 저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8년에는 미술과 디자인 관련서를 만드는 소규모 출판사 템포러리 프레스를 설립했다.

후루프

말레이시아에서 설립, 쿠알라룪푸르에서 활동. 후루프는 말레이시아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는 활자 디자인 집단이다. 말레이시아 타이포그래피의 정체성을 찾는 데 관심을 두고, 다국어 타이포그래피, 토착어 활자, 현지 타이포그래피 문화 같은 주제를 탐구한다. 후루프는 교육 플랫폼으로서 워크숍을 열고 강연회와 행사를 주최하며,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한다. 2017년 탄 수에 리가 설립했고, 로 신 인, 탄 지 하오, 데이비드 호 밍 아운, 팜 카이총이 뒤이어 합류했다.

홍은주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그래픽 디자이너 홍은주는 2000년대 후반 주문형 출판 잡지 가짜잡지를 발행했고, 관련 전시회 GZFM 90.0 91.3 92.5 94.2(공간 해밀톤. 2010)를 기획했다. 같은 시기에 동료 디자이너, 기획자들과 함께 전시회 아름다운 책 2010(서교예술 실험센터, 2011)을 기획하기도 했다. 2017년 공간 시청각에서

bring about change in unequal societies.

So Hashizume

Born in Japan; based in Tokyo. So Hashizume studied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Musashino Art University, Tokyo, and earned his MA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London. Since 2007, he has worked as an independent art director and graphic designer engaged in various exhibitions and workshops. He has taught at Joshibi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and Musashino Art University.

Gideon-Jamie

Founded and based in Singapore. gideon-jamie is a design studio run by Gideon Kong and Jamie Yeo. A large part of their practice involves alternative modes of production, communication, and distribution. Since 2017, the studio has been engaged in various projects from commissioned graphic design work to object and prototype making, research, writing, and teaching. In 2018, they started Temporary Press, a smallscale publishing press producing books around art and design.

Huruf

Founded in Malaysia; based in Kuala Lumpur. Huruf is a type design collective that strives to promote Malaysian typographic identity. They are keen to explore topics such as multilingualism, vernacular type, and local typographic culture. To share knowledge and inspire interest in typography. Huruf provides educational platforms such as workshops, talks, and events. Founded by Tan Sueh Li in 2017, Huruf was later joined by Low Hsin Yin, Tan Zi Hao, David Ho Ming Aun, and Fam Kai-Cong.

Hong Eunioo

Seoul. Graphic designer Hong Eunjoo created print-on-demand magazine Gazzazapzi in the late 2000s and organized a related exhibition GZFM 90.0 91.3 92.5 94.2 (Space Hamilton, 2010). With her fellow designers and curators, she also organized the exhibition Beautiful Books in Korea 2010 (Seoul Art Space Seogyo, 2011). In 2017, she had her solo exhibition Almost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개인전 거의 확실한을 열었고, 같은 해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에서 열린 W쇼에서는 한국의 여성 디자이너들을 소개하는 웹 플랫폼 여성들을 제작해 전시했다. 출판 플랫폼 G&Press를 통해 때때로 실험적인 도서를 발행하기도 한다. 대학교에서 웹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을 가르친다.

사키 호

홍콩 출생, 독일 함부르크와 홍콩에서 활동. 사키 호는 독립 그래픽 디자이너 겸 디자인 연구자다. 홍콩에서 성장하고 문화적 맥락이 복잡하게 중첩한 몇몇 도시에서 생활한 그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언어의 모호성과 해석의 차이를 탐구한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홍콩과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창의적 브랜딩 전략과 협업에 중점을 두고 '리서치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신인아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공과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과 사회학을 복수 전공했다.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을 운영하며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개인, 단체, 기업과 협업한다. 동시대 한국 '고유' 문화를 반영하는 시각 언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여성주의적 미래를 마중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을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며 교류한다.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최윤은 통속적이고 전형화된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확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관습과 인식 체계의 이미지를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으로 보여 준다. 개인전 마음이 가는 길(두산아트센터, 2020 예정), 하나코, 윤윤최, 최윤 개인전(아트선재센터 프로젝트 스페이스, 2017)과, 다수의 그룹전 나는너를중세의미래한다1(아트 선재센터, 2019), 부산 비엔날레 비록 떨어져 있어도(구 한국은행 2018), 광주 비엔날레 위성 전시, 파빌리온 프로젝트 이제 오늘이

Certain at the Audio Visual Pavilion, Seoul, and presented Womenfolks, an online platform to introduce Korean female graphic designers, in The W Show held at the SeMA Storage. She teaches web design and graphic design at various universities and occasionally publishes experimental books through the publishing platform G&Press.

Saki Ho

Born in Hong Kong; based in Hamburg, Germany, and Hong Kong, Saki Ho is an independent graphic designer and researcher. Having grown up in Hong Kong and lived in cities overlaid with multiple cultural contexts, her typographic work explores the ambiguity of language and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She has participated in various artistic and cultural projects, and her works have been presented in Hong Kong, Japan, the Netherlands, and Germany, among others. She runs Research Studio with a focus on creative strategies for branding and collaborative projects.

Shin In-ah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Shin In-ah studied visual communication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Her graphic design studio Scenery of Today collaborates with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striving for social change, exploring the possibilities that reflect the "native" cultures of contemporary Korea. She co-founded the Feminist Designer Social Club to promote a vision for the female-empowered future.

Yun Choi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Through installations. videos, and performances, Yun Choi recreates and enhances popularized and stereotypical images to comment on Korean society's norms and values. Solo shows have included Last New Year I Gave You My Heart (DOOSAN Art Center, planned for 2020), Hanaco, Yunyunchoi, Choi Yun Solo Exhibition (Art Sonie Center Project Space, 2017), and she has taken part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iwillmedievalfutureyou1 (Art Sonje Center,

있을 것이다(광주시민회관, 2018), A Snowflake(국제갤러리, 2017), Shame on You(두산갤러리 뉴욕 2017),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16) 등에 참여하였다.

킴벌리 리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킴벌리 리는 몸 없이 머리만 있는 동명의 아바타를 내세우는 3D 그래픽 제작자이다.

이세현

한국 출생, 광주에서 활동. 이세현은 사진작가로,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작업들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2010년 광주 대인 시장 레지던시를 시작으로 2015년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 레지던시. 2017년 일본 요코하마 코가네쵸 레지던시, 2018년 타이완 타이닌 샤오롱 아티스트 빌리지 등의 작가 레지던시에 참여하였다. 역사적 장소에 대한 전시 경계(Boundary)로 2019년 광주 롯데갤러리와 2018년 타이완 샤우롱 아티스트 빌리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그룹전으로는 2019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린 영호남 작가의 화합을 도모했던 전시 각자의 시선에 참여하였고, 2018년 타이난 국제 포토 페스티벌에 참여하였다. 또 2018년 광주 비엔날레 위성 프로그램인 필리핀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필리핀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선보였다.

이동근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이동근은 낯선 대상(혹은 정보)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며,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체들의 질문들과 그를 통한 조형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구의 여집합(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8), 미지를 위한 부표(금호미술관, 서울, 2017) 등 두 번의 개인전을 했으며, 사용된 미래(수림아트센터, 서울, 2019), 금호영아티스트: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금호미술관, 서울, 2019),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두산갤러리, 서울, 2019), 깜박일수록 선명한(두산갤러리, 뉴욕, 2018)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19), Busan Biennale 2018: Divided We Stand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former Bank of Korea, 2018), Pavilion Project, a satellite exhibition of the 2018 Gwangiu Biennale Today Will Happen (Gwangju Civic Center, 2018), A Snowflake (Kukje Gallery, 2017), Shame on You (DOOSAN Gallery New York, 2017), and 2016 Seoul Focus: No Longer Objects (Buk-Seoul Museum of Art. 2016)

Kimberly Lee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Kimberly Lee is a creator of 3D graphics known through her head-only avatar character.

Sehyun Lee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Gwangju. Sehyun Lee is a photographer who creates a variety of photo-based work. Beginning with Daein Market in Gwangiu in 2010, he has been artistin-residence at the Shanghai Himalayas Museum (2015), Koganecho at Yokohama (2017). and the Siao-Long Artist Village in Tainan, Taiwan. His solo show Boundary was shown at the Lotte Gallery in Gwangju (2019) and the Siao-Long Artist Village in Tainan (2018). He has taken part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In Your View, 5.18, which sought harmony between artists in the Youngnam and Honam regions, at the Asian Culture Center in 2019. and the Tainan International Foto Festival in 2018. His work has also been shown alongside Filipino artists in the Philippine Pavilion Project, a satellite exhibition at the 2018 Gwangju Biennale.

Donggeun Lee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Donggeun Lee investigates unfamiliar objects and information and experiments with the ensuing questions and formative possibilities that arise from these perplexing situations He has had two solo exhibitions, The Complements of Sphere Arrangements (project space SARUBIA, 2018) and Buov for the Unknown (Kumho Museum of Art. 2017), and has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Used Future (Soorim Arts Center, 2019), Kumho Young Artist: The 69 Times of

차재민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차재민은 영상, 퍼포먼스, 설치 작업을 한다. 합성 이미지보다는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며 시각 예술과 다큐멘터리의 가능성과 무력함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개인들의 현실에 접근하고, 그 개인들의 삶 안에 사회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주목한다. 부산현대미술관, 필름 앳 링컨 센터, 카디스트, 바르셀로나 현대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베를린 국제 영화제, 광주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전주국제영화제, 두산갤러리 등 다수의 그룹전과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송민정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송민정은 '업로드'(upload)에 기초하여 유저 콘텐츠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을 제작하고, 이를 특정한 상황으로 굴절시키며 스크린과 신체 사이의 통제력을 다룬다. 송민정의 스크린이 인상주의와 리얼리즘을 느슨하게 가로지르며 추적하는 것은 신체적 장소와 심리적 장소를 오가며 발생하는 당대의 리얼리티이다. COLD MOOD (1000% soft point) (취미가, 2018)와 Double Deep Hot Sugar—The Romance of Story(반지하 B1/2F, 2016)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밤이 낮으로 변할 때(아트선재센터, 2019), 아시아 필름 앤 비디오아트 포럼(국립현대 미술관, 2019), 젊은 모색(국립현대 미술관, 2019), PRO-TEST(SeMA 벙커, 2019), 퍼폼(일민미술관, 2018), 로터스 랜드(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2017)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윤지원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윤지원은 미술가이자 영화 감독이다. 영상 작업을 중심으로 설치 작업과 글쓰기, 전시 기획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2019년에 개인전 여름의 아홉 날(시청각)을 개최하고 동명의 작품을 선보였다.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2018(서울시립미술관),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국립현대

Sunrise (Kumho Museum of Art. 2019), YourSearch, On-demand Research Service (DOOSAN Gallery, Seoul, 2019) and Tenacious Afterimage (DOOSAN Gallery, New York, 2018).

Jeamin Cha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Jeamin Cha creates video, performance, and installations, using filmed video instead of synthesized images to question the possibilities and powerlessness of visual art and documentaries. She approaches individuals' realities through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and highlights how society permeates their lives. Cha has participated in group shows and festivals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Film at Lincoln Center, KADIST, Barcelo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Gwangju Biennale, Seoul Mediacity Biennale by Seoul Museum of Art, Jeoni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DOOSAN Gallery, among others.

Song Min Jung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Song Min Jung explores the act of "uploading," producing works that use the similar methods as user-generated content. distorting them into specific situations and monitoring forces of control between the screen and the body. Her screens casually cross the boundaries of impressionism and realism, chasing the reality of our times that are generated as we move back and forth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spaces. Her solo shows include COLD MOOD (1000% soft point) (Tastehouse, 2018) and Double Deep Hot Sugar—The Romance of Story (Vanziha B1/2F, 2016). She has taken part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Night Turns to Day (Art Sonje Center, 2019). 2019 Asian Film and Video Art Forum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9), Young Korean Artist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9), PRO-TEST (SeMA Bunker, 2019), PERFORM (Ilmin Museum of Art, 2018), and Lotus Land (Asia Culture Center, 2017).

미술관, 2016), 2015 랜덤 액세스 (백남준아트센터)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고, 기획한 전시로는 여덟 작업, 작가 소장(시청각, 2017), 돌과 땅(공간 꿀, 2012) 등이 있다.

최하늘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최하늘은 주로 조각 매체를 활용하며 때에 따라 다른 매체를 조각에 소화하기도 한다. 최하늘은 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며, 이를 담는 그릇으로 조각을 활용한다. 최하늘의 조각은 개인적 서사 같은 미시적인 것에서부터 이 세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질서 같은 거시적인 것까지 두루 포괄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매체로서 조각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한다. 최하늘은 작업을 통하여 조각이 무자비하지도 않고 쓸모없지도 않으면서 현대인과 함께 서 있는 이미지를 상상한다.

이강승

한국 출생,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이강승은 종합 예술가로, 그의 작품은 성 소수자의 역사적 유산이 미술사와 교차하는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다. 최근 전시로는 팜스프링스 미술관(2019), 파티시펀트사(뉴욕, 2019), 원앤제이갤러리(서울, 2018), 코먼웰스 & 카운슬(로스앤젤레스, 2017, 2016), 아트페이스 샌안토니오(2017) 등이 있다. CCF 비주얼 아티스트 펠로십(2019), 리마 호트 맨 재단 지원금(2018) 수혜자로 선정되었으며, 아트 페이스 샌안토니오 국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 작가 (2017)였다. 2020년에는 국립현대 미술관(서울), 대림미술관(서울), 레슬리-로먼 미술관(뉴욕), 18번가 아트 센터(산타모니카),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에서 새로운 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염지혜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염지혜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현재의 단독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and film director. While his main practice consists of video, Yoon Jeewon has also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installation art, writing, and exhibition planning. He had a solo show 9 Days in the Summer (Audio Visual Pavilion, 2019) featuring a work by the same name. 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eoul Museum of Art). As the Moon Waxes and Wan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6), 2015 Random Access (Nam June Paik Art Center, 2015), and he has curated 8 Works, Collections of the Artists (Audio Visual Pavilion, 2017), and Stone and Land (Space Ggooll, 2012).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Yoon Jeewon is an artist

Haneyl Choi

Yoon Jeewon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Haneyl Choi mainly works with sculpture, but at times incorporates other mediums into his work. His sculptures are the vessel through which h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the individual entity. His works run the gamut from the microscopic, such as his personal narrative, to the macroscopic, such as the great world order that underpins our societies. He also explores ways to overcome the existing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the medium of sculpture. Through his work, Haneyl Choi envisions a world where sculptures that are not cold or useless stand by and among people.

Kang Seung Lee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Los Angeles, USA, Kang Seung Lee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His work frequently engages the legacy of gueer histories, particularly as they intersect with art history. Recent projects include exhibitions at Palm Springs Art Museum (2019), Participant Inc (New York, 2019), One and J. Gallery (Seoul, 2018), Commonwealth and Council (Los Angeles, 2017, 2016), and Artpace San Antonio (2017). Lee is the recipient of the CCF Fellowship for Visual Artists (2019), the Rema Hort Mann Foundation grant (2018), and Artpace San Antonio 상상한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상상하기 위하여 과학, 역사, 철학, 종교, 구전, 믿음 등을 상상과 연구의 도구로 삼는다. 과거와 현재, 오늘과 미래, 경험과 기억, 이미지와 꿈, 전설과 서사 등이 서로 혼합되어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연결 고리의 탐색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과 새로운 말하기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파트타임스위트

한국에서 결성, 서울에서 활동. 파트타임스위트는 이미연과 박재영의 듀오 그룹이다. 2009년 공통적으로 처해 있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기반으로 파트타임스위트를 (트리오로) 결성한 후, 다양한 공간의 플롯 속에서 예술과 사회, 연대의 가능성에 관심을 두면서 작업해 왔다. 현실의 상황과 주어진 제약 및 조건을 흥미로운 요소로 차용하고 전환, 증폭시키는 개입과 개시의 방법론을 구사하며, 다큐멘터리적 영상과 시적 개입으로서의 퍼포먼스, 사운드가 결합된 작업을 주로 해 오고 있다. 2013년 듀오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일상의 근간을 압도하고 개개인의 감각, 정서, 인지까지 포괄하는 '전-경제주의'와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 질문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미술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작은 힘에 대해

김희천

탐구하고 있다.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김희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를 졸업했다. 아트선재센터 (서울, 2019), 아시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2018), 두산아트 센터(서울, 2017)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국립현대미술관(서울, 2019), ZKM(카를스루에, 2019), 마닐라 MCAD(2019), 광주 비엔날레(2018), 이스탄불 비엔날레(2017), 쿤스탈 오르후스 (2016),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2016) 등 국내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International Artist-in-Residence program (2017). In 2020 his new projects will be exhibited a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Daelim Museum (Seoul), Leslie-Lohman Museum (New York), 18th Street Art Center (Santa Monica), and Gwangju Biennale.

Ji Hye Yeom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Ji Hve Yeom perceives current circumstances not as independent events in the present but as events surrounded by unseen forces. To imagine these unseen forces, she uses science, history, philosophy, religion, oral tradition and belief as tools of imagination and research. By exploring the new link where boundaries blur between past and present, today and tomorrow, experience and memories, images and dreams and legends and narratives, the artist aims to suggest an alternative view of the world and a new form of expression.

Founded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Part-time Suite is a

duo consisting of Miyeon Lee

founded as a trio in 2009 on

and Jaevoung Park, Originally

Part-time Suite

the basis of a shared critical social-economic commentary. Part-time Suite has since been exploring the potentials of art. society, and solidarity through the narratives of various environments. Their interjection and initiation methodology involves borrowing, transforming and amplifying the stipulations and constraints of given circumstances into points of interest. Their works incorporate documentary-style videos and interjections of poetry that merge performance and sound. In 2013, Part-time Suite became a duo, and their artistic exploration expanded into areas of the prevailing econocentr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that pervade the fabric of everyday life by dominating the senses, emotions, and perceptions. The artists closely examine the power of art, no matter how small, to create under these conditions.

Kim Heecheon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Kim Heecheon graduated

호상근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호상근은 한성대학교 미술학사 회화 심화 전공을 졸업했으며, 2012년 동 대학원 회화과 서양화를 수료했다. 대안 공간 꿀풀에서 개인전 내가 본 것, 네가 본 것: 호상근 재현소(서울, 2012)를 열었고, 서울시립미술관(2017), 일민미술관 (서울, 2017),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16), 시청각(서울, 2015), 부산시립미술관(2014)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책 구석진 풍경(2012), 보옴, 여름, 가을, 겨울(2019)을 출판하였고, 현재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HBK 에서 진행하는 비에스 프로젝트 (2019-2020)에 참여하고 있다.

황문정

한국 출생, 서울에서 활동. 황문정은 도시라는 인공적인 질서 체계를 구성하는 사람, 인공물, 자연 등의 요소를 관찰하며, 도시 이면의 관계가 드러나는 특정한 장소와 상황에 주목한다. 도시에 대한 이러한 작가의 해석은 설치,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된다. 최근 그룹전으로는 Summer love (송은아트스페이스, 2019),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겠지요 (두산갤러리, 2019), APMAP 2019(아모레퍼시픽 제주 오설록 티하우스, 2019) 등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레지던시 작가로 입주해 있다.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ith a degree in architecture. His solo exhibitions were held at the Art Sonie Center (Seoul, 2019), Asian Art Museum (San Francisco, 2018) and DOOSAN Art Center (Seoul, 2017), and he has participated in several group exhibitions in Korea and abroad, including a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2019), ZKM (Karlsruhe, 2019),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Design Manila (2019), Gwangiu Biennale (2018), Istanbul Biennial (2017), Kunsthal Aarhus (2016), and

Seoul Mediacity Biennale (2016).

Sangun Ho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Sangun Ho studied at Hansung University with a B.F.A. and M.F.A. in painting He held the solo exhibition Things I've Seen, Things You've Seen: HOSANGUN REPRODUCTION OFFICE at Ccuull Pool (Seoul 2012) and has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shows at Seoul Museum of Art (2017), Ilmin Museum of Art (Seoul, 2017), Space Willing N Dealing (Seoul, 2016), Audio Visual Pavilion (Seoul, 2015) and Busan Museum of Art (2014). He has published Detached View (2012) and Spring, Summer, Autumn, Winter (2019) and is a participant in the BS Projects (2019-2020) at the HBK Braunschweig in Germany.

Moonjung Hwang Born in South Korea: based in Seoul, Mooniung Hwang examines the artificial construct of order built into a city by observing its people, man-made structures and natural elements. Hwang's work focuses on revealing obscure places and situations and the hidden relationships that exist within. This interpretation of the city is visually materialized in various mediums, including installations, videos, and games. She has participated in the recent group exhibitions of Summer Love (SongEun ArtSpace, 2019). Our Paradise, Probably a Great Place (D00SAN Gallery, 2019) and APMAP 2019 (Amorepacific Jeju OSULLOC Tea House, 2019). She is currently an artist-in-residence at SeMA Nanji Residency,

강연자

비자이 프라샤드

비자이 프라샤드는 트라이콘티넨털 사회 연구소 디렉터이다. 또 그는 뉴델리 기반의 출판사 레프트워드 북스의 편집장이며, 인디펜던트 미디어 인스티튜트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글로브트로터의 수석 기자로 활동하면서 인도 첸나이에서 발행되는 잡지 프런트라인에도 글을 기고한다. 수상 연작인 갈색의 세계사(The Darker Nations)와 빈곤 국가(The Poorer Nations)를 포함하여 3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가장 최신 저서는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가 서문을 쓴 워싱턴 불릿이다.

에카 쿠르니아완 → 279쪽

서지원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비교 정치를 공부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정치, 과거 청산, 인권, 정체성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국가폭력인가 집단 간 폭력인가? 인도네시아 1965-66년 학살에 대한 해석들(2020), Plural Justice: Indonesian Norm Entrepreneurs and Models of Justice(2019), 인도네시아 이행기정의와 수하르토 민족영웅 논쟁: 법정주의를 넘어 (2018) 등이 있다. 단행본 베네딕트 앤더슨(2018)을 냈으며, 베네딕트 앤더슨의 단행본 세 깃발 아래에서: 아나키즘과 반식민주의적 상상력 (2009)과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2018) 및 몇 편의 글을 번역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도쿄 대학 대학원 종합문화 연구과 표상문화론 코스(박사)에서 수학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표상문화론, 근현대 일본 사회와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와

Lecturers

Vijay Prashad Vijay Prashad is the director

of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He is also the chief editor of the New Delhibased publishing house LeftWord Books and is the chief correspondent for Globetrotter as well as a columnist for the Chennai-based Frontline magazine. He is the author of almost thirty books. including the prize-winning volumes The Darker Nations and The Poorer Nations, His latest book is Washington Bullets, with a preface by Evo Morales Ayma.

Eka Kurniawan \rightarrow p. 279

on the Origin and Spread of

B.A., Department of Communi-

M.A., Department of Communi-

cation at Seoul National Uni-

versity. Ph.D. in Culture and

Representation Course in the

Cultural Studies at Th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University of Tokyo. Kim Hang

currently teaches and researches

cation at Yonsei University.

Nationalism (2018).

Hang Kim

Jiwon Suh 백원담(白元淡)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uh studied Comparative Politics at Ohio State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emphasizes the politics, resolutions of the past, human rights and identity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with a focus on Indonesia. Her recent papers include State Violence or Communal Violence? Interpretations over the 1965-66 Massacre in Indonesia (2020), Plural Justice: Indonesian Norm Entrepreneurs and Models of Justice (2019), Beyond Legalism: Indonesian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Debate on Suharto as a National Hero (2018). She has written a profile of the life and work of Benedict Anderson (2018) and translated works by Anderson into Korean, including Under Three Flags: Anarchism and 2009) 등이 있다. the Anti-Colonial Imagination (2009) and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현재 한림 대학교 한림과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1945년 이후 미국을 매개로 형성된 냉전 문화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게 된 과정에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정치적 제국/식민주의와 결합되거나 혹은 동아시아 국민 국가들의 기원과

문화 정치를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말하는 입과 먹는 입 (2009), 제국일본의 사상(2015), 종말론 사무소(2016) 등이 있으며, 아감벤과 슈미트의 저서 등 다수의

역서가 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어와 역사를,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학을 공부했다.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갈색의 세계사, 아름다움 그것은 상처, 호랑이 남자, 페소아의 리스본, 대항해시대의 동남아시아 (근간) 등을 우리말로 옮겼고, 비동맹 독본을 공동으로 엮었다.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국제문화 연구학과 교수,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중국 상하이 대학 문화연구 학계(上海大學文化研究學系) 해외 교수, 황해문화 편집 위원, 타이완 인간사상(人間思想) 편집 위원이다. 한국냉전학회/한국문화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인터-아시아 문화 연구 2017 국제 콘퍼런스 조직 위원장을 맡았다. 논저로는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2017), 신중국과 한국전쟁(2013), 인터 코리아, 인터 차이나, 인터 아시아 (2019), 5.4 100년의 등하만필 (燈下漫筆): 복수(複數)의 역사들을 위하여(2019), 아시아가 만드는 세계: 38미터의 관계학에서 신시대 평화연대로(2018), The 60th Anniversary of the Bandung Conference and Asia(2016), 냉전아시아의 문화풍경 I·II(2008,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냉전이 제2차 현상이기는 하지만, 1945년 이전의 결부되는 양상을 주로 연구해 왔다.

theories of Cultural Represe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modern and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and contemporary society and cultural politics in the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at Yonsei University. He has published several book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of modern Japanese intellectual and cultural history and critical theory, including The Mouth that Speaks and The Mouth that Eats (2009). The History of Thoughts in the Japanese Empire (2015), and The Eschatological Bureau (2016). He has translated works by Carl Schmitt and Giorgio Agamben into Korean.

So-Hvun Park

Park studied Indonesian language and history in Yogyakarta, and Southeast Asian Studies in Singapore. She is interested in introducing South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to a wider audience, and has translated the following works into Korean: The Darker Nations: A People's History of the Third World, Beauty Is a Wound, Man Tiger: A Novel, Lisbon: What the Tourist Should See, and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forthcoming). She also co-compiled Non-Aligned Reader.

Wondam Paik

Professor of Chinese Language and Studies and International Cultural Studies at Sungkonghoe University, Head of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ungkonghoe University. Overseas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at Shanghai University, Editor of Hwanghae Review, Editor of Renijan Thought Review, Taiwan, Former Chairperson of Korea Cold War Society/Korean Association of Cultural Studies. Head of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2017 Inter-Asia Cultural Studies Conference. Selected publications include Cold War in Hot War, How War in Cold War: Cold War and Thought-Psychological Warfare in Asia (2017). New China and the Korean War (2013), Inter-Korea, Inter-China, Inter-Asia (2019), One Hundred Years of 5.4:

최근에는 탈냉전 상상의 계보를 복원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냉전 시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보다 넓은 범주의 한국학이나 지식 사회학의 관점에서 논문을 써 왔다. 저서로는 상상된 아메리카: 1945년 이후 한국의 네이션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2012), 슬픈 아시아: 한국 지식인들의 아시아 기행 (1945-1966)(2012), 숨겨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 1945-1972(2018) 등이 있다. 역서로는 마루카와 데츠시의 냉전문화론: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2010)가 있다.

오창은(吳昶銀)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이자 문학 평론가이다. 1970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하였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남초등 학교 시절에 겪었으며, 1987년 6월 항쟁은 광주고등학교에 다닐 때 거리를 함께 걸으며 목격했다.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중대신문 기자로 활동하며 현장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쳤다. 200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되어 지금도 문학 비평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2005년 중앙대 대학원에서 한국 도시소설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작가회의 정책 위원장 및 평론분과 위원장과 계간 문화/과학 편집 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작가회의에서 발행하는 내일을 여는 작가 편집 주간을 맡아 일하기도 했다. 지금은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 위원으로 시민 교육에 관여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한국 현대 소설, 한국 문화, 북한 문학이다. 저서로 평론집 비평의 모험(2005),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2011), 나눔의 그늘에 스며들다(2017), 인문 비평서 절망의 인문학(2013)이

백승욱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 노동 정책의 변화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Jottings Under Lamplight for Multiple Histories (2019), World Created by Asia: from 38 Meters of Theory of Relationships to New Era of Peaceful Solidarity (2018), The 60th Anniversary of the Bandung Conference and Asia (2016), and Cultural Landscape of Cold War Asia I & II (2008, 2009).

Seijin Chang Associate Professor in the

Hallym Academy of Sciences at Hallym University, Chang studied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Yonsei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how Cold War culture-that was formed in the hotbed of the United States from 1945-took root in Korean society. Her research has focused on how the post-World War II international political phenomenon of the Cold War is often combined with the narrative of pre-1945 imperialist colonialism and the origins of modern East Asian nationstates. Currently, she is working to restore the genealogy of the post-Cold War imaginaries. She has written essays from the broader perspective of Korean Studies drawing on a breadth of research subjects and sociological knowledge that goes beyond literary works. Chang's books include Imagined America: How National Narratives of Korea Have Been Constructed Since August, 1945? (2012), Sad Asia: A Travelogue of Korean Intellectuals (1945-1966) (2012). and Hidden Future: The Lineage of Anti-Cold War Imagination (1945-1972) (2018). She translated Tetsushi Marukawa's Theory of Cold War Culture: How Does Japanese Cinema and Literature Remember the Cold War after 1945? (2010).

Chang Eun Oh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DaVinci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eoul. Literary critic. Born 1970 in Haenam, South Jeolla Province. Oh experienced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at Gwangiu Nam Elementary School and witnessed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of 1987 as he walked the streets himself. He entered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조교수. 미국 뉴욕 주립 대학교 빙엄턴 캠퍼스 페르낭 브로델 센터 방문 학자, 영국 서섹스 대학 글로벌 정치 경제 연구소 방문 학자, 중국 상하이 대학 사회학과 방문 학자, 독일 베를린 자유 대학 한국학 연구소 방문 학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문화대혁명, 중국노동자와 노동 정책, 자본주의 역사 강의, 생각하는 마르크스,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등이 있고, 역서로 장기 20세기,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등이 있다.

김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아어학과를 졸업하고,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UNAM) 정치 사회 과학 대학에서 중남미 지역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선문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대학교 중남미연구소장 직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한국 라틴아메리카학회장, 외교부 정책 자문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공저, 2011), 라틴아메리카 인종과 정치(2012), 중남미 엘리트 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공저, 2012)가 있고, 역서로는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달사 (2009), 쿠바: 경제사회적 변화와 사회주의의 미래(2014) 등이 있다.

아르헨티나 연합 신학 대학원 신학 박사(Th. D.), 장로회 신학 대학교 신학 대학원 목회학 석사 (M.Div.),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립 대학교 경영학을 수학했고, 현재 한국기독교연구소 소장이다 아르헨티나 연합 신학 대학원 교수, 쿠바 마탄사스 개신교 신학 대학 교수, 멕시코 장로교 신학 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홍인식 목사가 쉽게 쓴 해방신학이야기(신앙과 지성사, 2017), 예수, 그 2000년의 믿음과 사랑(코람데오, 2001), 왜 눈을 떠야 할까(공저, 신앙과 지성사, 2008), 미래신학. 미래세대. 미래교육(공저,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2009), 기독교 영성과 윤리(공저, 한들출판사, 2011), 창세기로 예배하다(샘솟는 기쁨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at Chung-Ang University and experienced firsthand the importance of being on the scene while working as a reporter for the CAU Newspaper. In 2002, he won the award for literary criticism in the Kyunghyang Shinmun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and has been writing literary criticism ever since. He received his doctorate in 2005 at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for his A Study on Korean Urban Novels. He has served as Chairman of the Policy Committee and Review Subcommittee of the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as a member of the editorial committee for the quarterly publication Culture/ Science: and, as Executive Editor for Writers Opening Tomorrow published by the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He is currently involved in Citizenship Education at Academy Neutinamu i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s an operational committee member. His fields of research include modern South Korean literature,

Seungwook Baek

of Despair (2013).

Korean cultural studies, and

North Korean literature. His

published works include the col-

lections of criticism The Risk of

Criticism (2005), Justifications

for the Insulted (2011), and

Under the Shadow of Sharing

(2017); and a critique of Korean

humanities academia Humanities

Professor of Sociology at Chung-Ang University. Baek received his doctorate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his dissertation on the changes in Chinese labor policies. Formerly Associate Professor of Chinese Regional Studies at Hanshin University. He has been a visiting scholar at: Fernand Braudel Center a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United States; The Centre for Global Political Economy at the University of Sussex, Brighton, England;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Shanghai University, China: and,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His publications

2020) 등이 있다. 역서로는 욕망, 시장 그리고 종교(서해문집), 통전적 선교(나눔사), 욕망사회 (한겨레), 우리 안의 가짜 하나님 죽이기(신앙과 지성사) 등이 있다.

서동진 → 277쪽 in Korean includ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Aporia of Politics, Cultural Revolution, Chinese Workers and Labor Policies, Lectures on Capitalist History, Thinking Marx and China on the Boundaries of Globalization. He has translated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Social Scien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nd others.

Kihvun Kim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Sun Moon University, Asan, South Korea.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Sun Moon University. Kim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Spanish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arned his M.A. and Ph.D. in Latin American Studies from the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He has been the president of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Kim served on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Sou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is primary publications include Understanding Latin American Economy (co-author, 2011), Race and Politics of Latin America (2012), and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American Elite Organizations (co-author, 2012). He has translated The History of Capitalism in Latin America (2009) and Cuba: Socioeconomic Change and the Future of Socialism (2014).

Insik Hong

Th.D., Instituto Superior Evangélico de Estudios Teológicos, Argentina. M.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National University of Asunción, Paraguay. Hong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Korean Institute of the Christian Studies. Hong has taught at the Instituto Superior Evangélico de Estudios Teológicos in Argentina, Matanzas Protestant Theological Seminary in Cuba, and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Mexico. His publications include Introduction

to Latin American Liberation Theology (Faith and Reason, 2017), Jesus, His 2000 Years of Faith and Love (Coram Deo, 2001), Why Keep Our Eyes Open (Sinanggwa Jiseongsa, co-author, 2008), Future Theology. Future Generations. Future Education (co-author,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2009), Christian Spirituality and Ethics (co-author, Handl, 2011), and Genesis: The Five Books of Moses (Saemsotneun Gippeum, 2020). He has translated Desire, Market and Religion (Seohaemunjip) Mission Integral (Nanumsa), Desire Society (Hankyoreh), and Killing Our Gods (Sinanggwa Jiseongsa) into Korean.

Dongjin Seo \rightarrow p. 277

연대의 홀씨 2020년 5월 15일-10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3·4관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작 아시아문화원 협력 류블랴나 현대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협찬 컬처플리퍼

예술감독 김성원

기획 보야나 피슈쿠르 발리 마흐루지/ 마지막 10년의 고고학 김성희 슬기와 민/고토 데쓰야 서동진 김성원

아시아문화원 원장 이기표

전시기획팀
팀장 조정란
선임 큐레이터 곽소연
큐레이터 권은영
코디네이터 조은영, 김현주
테크니션 정명성
영상 제작 지원 배현태, 김남균, 안개영

그래픽 디자인 슬기와 민 공간 디자인 맙소사 번역 컬처플리퍼 에디터 심정은 사진 김진호 인쇄 으뜸프로세스

감사한 분들
산티아고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박물관 류블랴나 국제 그래픽 아트 센터 슬로벤 그라데츠 코로슈카 현대 미술관 베오그라드 아프리카 박물관 몬테네그로 컨템퍼러리 아트 센터 두브라브카 세쿨리치 페렌츠 그로프 <u>발행인</u> 박태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

발행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61485) Tel. 1899-5566

발행일 2020년 10월 16일

www.acc.go.kr

© 20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책에 수록된 글과 도판의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89652-57-9 (03650)

비매품

Solidarity Spores
May 15-October 25, 2020
ACC Creation, Space 3 and 4
Asia Culture Center

Hosted by Asia Culture Center
Produced by Asia Culture
Institute
In Collaboration with
Moderna Galerija and
Seoul Museum of Art
Sponsored by Culture Flipper

Directed by Sungwon Kim

Curated by
Bojana Piškur
Vali Mahlouji/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Seonghee Kim
Sulki and Min/Tetsuya Goto
Dongjin Seo
Sungwon Kim

Asia Culture Institute
President Lee Gi Pvo

Curatorial Team

Team Leader Jeong Ran Cho
Senior Curator Soyean Goak
Curator Lucia Eunyoung Kwon
Coordinator Eunyoung Jo,
Hyunju Kim
Technician Myung-sung Jeong
Video Support Hyun-tae Bae,
Namkyoon Kim, Jae Young
Ahn
Intern Da Eun Kim, Jungin Choi

Graphic Design Sulki and Min Space Design MARCSOSA Translation Culture Flipper Editor Jeongeun Shim Photography Zinho Kim Printing Top Process

Thanks to
Museo de la Solidaridad
Salvador Allende, Santiago
Museum of Yugoslavia, Belgrade
Mednarodni Grafični Likovni
Center, Ljubljana
Koroška Galerija Likovnih
Umetnosti, Slovenj Gradec
Museum of African Art,
Belgrade
Contemporary Art Center of
Montenegro
Dubravka Sekulić
Ferenc Gróf

Publisher
Park Taeyoung
(Acting President,
Asia Culture Center)

Published by
Asia Culture Center
38, Munwhajeondang-ro,
Dong-gu, Gwangju
(61485), South Korea
Tel. +82 1899-5566
www.acc.go.kr

Published on October 16, 2020

© 2020
Asia Culture Center
All rights reserved to
the artists, contributors,
Asia Culture Center.
No part of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Not for sale









